

29일 Market Index			
↑ 코스피	6690.90	↑ 코스닥	1220.26
	(+49.88)		(+4.68)
↓ 금리 (연고채 3년)	3.525	↑ 환율 (원/달러)	1477.80
	(-0.004)		(+4.20)



정부차원 자본시장 투자... 나라의 富 쌓는다

대한민국 '국부펀드' 채비

국제금융·해외 기반시설 등 투자 국가위험 분산·회피 등 활용할 듯 재경부, 이르면 연내 조성안 마련

우리 정부도 미 달러화 등의 자산을 주식이나 채권 등의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한다. 국내뿐 아니라 국제금융시장, 해외 기반시설 등에 투자해 나라의 부(富)를 늘려가고 후대에 물려준다는 것. 지구촌에 금융위기 등이 불어닥칠 시 이 같은 펀드가 국가위험 분산·회피(헤지)에도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른바 국부펀드다. 싱가포르의 테마섹홀딩스·싱가포르투자청 등이 대표적이다. 한 국가 내 2개의 펀드로, 외환보유액이 투자 재원이다.

아랍에미리트(UAE)의 아부다비펀드의 경우, 석유 수출로 거둬들인 현물 수익을 금융시장에 재투자하는 방식이다. 산유국 이란 역시 '국가개발기금'이라는 이름의 국부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한국형 국부펀드'를 설계 중이다. 이르면 연내 뼈대와 투자처, 운용방향 등을 담은 세부 조성안이 공표될 전망이다. 재경부는 29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민경설 혁신성장실장 주제로, 한국판 국부펀드 설립방향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 등 유관 부처·기관, 전략산업분야 유망기업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국부펀드의 설립 방향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민간·공공기관 등 각계의 의견을 청취할 목적으로 여론수렴 절차를 공



제주함 진수식 29일 경남 고성군 SK오션플랜트에서 열린 제주함 진수식에서 진영승 함참의장(왼쪽 여섯번째), 김경률 해군참모총장(앞줄 왼쪽 다섯번째)을 비롯한 행사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해군

식적으로 개시한 것. 참석자들은 일단 정부가 그간 정책펀드·정책금융을 지원해 창업 생태계를 성공적으로 조성해 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대부분 청산을 전제로 만든 '한시적 펀드'인 탓에 인내 자본 형태의 기능에는 한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청산할 필요 없는 국부펀드의 역할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2면에 계속>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삼성, 가전생산 외주 전환 글로벌 생산전략 '대전환'

전자레인지·식기세척기 등 외주 냉장고·에어컨 등 직접생산 유지 동남아 거점 말레이 공장도 폐쇄

삼성전자가 생활가전 생산 라인 일부를 외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그 배경과 과정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외주 전환 여부와 대상 품목, 생산 지역 등 구체적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번 검토 배경에는 가전 사업의 구조적 수익성 위기와 글로벌 생산 전략 재편이 맞물려 있다.

삼성전자 가전 사업은 최근 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부품의 원가와 물류비 상승 등 어려움이 가중되며 더욱 민첩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29일 삼성전자 공식 IR에 따르면 VD·DA 사업부는 2024년 4분기 합산 매출 14조 4000억 원에 영업이익 2000억 원에 그쳤다. 김철기 DA사업부장은 임직원 경영설명회에서 "올해가 가전 사업 구조 혁신에 나설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시장에서도 하이센스·TCL·샤오미 등 현지 기업들의 공세가 거세지며 삼성전자의 TV, 냉장고, 세탁기 점유율은 각각 3.6%, 0.4%, 0.4%에 그친 상태다.

이런 환경 속에서 삼성전자는 전자레

인지·식기세척기 등 저수익 소형 가전의 외주 전환을 검토하는 반면,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대형 백색가전과 비스포크 시리즈는 직접 생산 체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누가 더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호남권에 위치한 80여 개 협력사들은 주로 부품과 완제품 일부를 공급하는 구조로, 완제품 전체를 외부에 맡기는 이번 외주화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가전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단을 출범한 바 있으나 이번 외주화 검토와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대응책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글로벌 생산 전략 차원에서도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1989년부터 동남아 가전 생산거점 역할을 해온 말레이시아 공장이 폐쇄하기로 결정됐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인수한 독일 플렉트그룹을 중심으로 냉난방공조(HVAC) 사업을 확대하고 AI 가전·구독서비스·B2B 사업도 강화한다. 이번 외주화 검토는 단순 생산 방식 조정을 넘어, 가전 사업 전반의 구조를 재편하는 신호로 평가된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공정위, 쿠광 총수 김범석 지정 '규제 대상'

동생 김유석씨 부사장으로 재직 '친족의 경영 참여 없을 것' 불충족 쿠광, 행정소송으로 소명 예고

그간 미국 국적과 지배구조 등을 이유로 '총수(동일인)' 지정을 피해왔던 김범석 쿠광Inc 의장(사진)이 결국 공시대상기업집단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돼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받게 됐다. 쿠광 측은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통해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쿠

광의 동일인을 법원에서 김범석 의장으로 변경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그간 공정위는 쿠광의 국내 친족회사가 없고 사익 편취 우려가 낮다는 이유로 김 의장 대신 법인인 쿠광Inc를 동일인으로 지정해왔다. 특히 지난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인 동일인' 예외 요건을 명문화하며 쿠광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4면에 계속> /세종=한용수 기자 hys@

5월 4일자 신문 휴간합니다. 최신 뉴스는 메트로경제 홈페이지에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메트로 한줄뉴스



▲AI·국제통상 등 전문가 공무원 확대...5급 승진 패스트트랙 도입
▲강훈식 "개방형 임용직 연봉상한 없애고 퇴직 후 취업제한 완화" /사진 뉴스스

▲민주당, 6·3 지방선거 '대한민국 국가정상화' 중앙선대위 구성
▲정청래 "조작기소 국조특위 마무리 즉시 특검 신속히 추진"

▲국힘, 與 '한예중 광주 이전' 법안에 "학생 미래까지 대표에 이용"
▲'1억 공천현금' 김경, 첫 재판서 혐의 인정...강선우는 '억울'

社告

메트로경제 기자모집 오늘마감

- 모집부문
 - ① 신입 취재기자(정규직, 수습기간 3개월)
 - ② 영상 촬영 및 편집(정규직, 수습기간 3개월)

- 모집내용
 - ① 전형방법
 - ▲ 1차: 서류전형
 - ▲ 2차: 취재역량평가(기사 작성·영상제작 및 편집 평가)
 - ▲ 3차: 면접(1차 실무 면접 → 2차 최종 면접)
 - ② 모집인원: 00명
 - ③ 응시자격
 - ① 4년제 정규대학 또는 동등학력 이상 졸업자(2026년 8월 졸업 예정자 응시가능)
 - ② 경력, 성별 및 나이 무관
 - ③ 남성은 병역필 또는 면제자
 - ④ 해외여행에 걸려사유가 없는 자

- 제출서류
 - ① 회사입사지원서1부(메트로신문 홈페이지, 구인사이트(잡코리아·사람인)에서 지원서 양식 다운로드)
 - ② 졸업(예정)증명서 등은 추후 최종 합격자에 한해 제출

- 원서접수
 - ① 기간: 2026년 4월 1일(수) ~ 2026년 4월 30일(목)
 - ②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recruit@metroseoul.co.kr / 방문 및 우편 접수(4월 30일 도착분)
 - ③ 접수장소: 03035 서울특별시 중로구 자하문로17길 18(옥인동, 메트로빌딩)
 - (주)메트로미디어 4층 경영지원실 인사담당자 앞

- 채용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6년 5월 8일(금) 본지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취재역량 평가시험
 - ① 일시: 2026년 5월 13(수) 10시 ~ 16시 40분
 - ② 장소: 추후 통지
 - ③ 내용: 공지하는 주제로 취재기사 작성 또는 영상제작물을 제작해 제출
 - 1차 실무면접
 - ① 대상: 서류전형 합격자
 - ② 일자: 2026년 5월 14일(목)~15일(금) 중 1일
 - ③ 장소: 메트로경제 본사 3층 회의실
 - ④ 기타: 면접 시간은 개별 통보
 - 2차 최종면접
 - ① 대상: 취재역량평가시험 및 1차 실무면접 합격자 <2면에 계속>



식품업계, 실적개선 흐름 뚜렷... 고환율·수급차질 '복병'

해외사업 비중 높은 기업 약진
'중동 리스크' 비용압력 본격화
2분기 실적둔화 위기감 고조

국내 식품업계가 올해 1분기 수출 호조와 원재료 가격 안정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개선된 성적표를 받아들 전망이다. 하지만 업계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촉발된 고환율과 포장재 수급 차질, 급변하는 바이럴 트렌드에 따른 비용 상승 등 '3중고'가 가시화되면서 2분기 실적 둔화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주요 식품기업들의 1분기 실적은 전년 대비 개선 흐름이 뚜렷하다. 국제 밀 가격 하락과 해외 사업 확장, 지난해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해외 사업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대표적으로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 열풍에 힘입



지난 15일 서울 중구 방산시장에 포장재 제품이 진열돼 있다.

/뉴시스

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0.9% 증가한 162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오리온 역시 중국 춘제 효과 등으로 17.2% 성장이 접혀진다. 농심과 오뚜기도 각각 7.4%, 5.2%의 영업이익 증가율을 보이며 안정적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수익성이 악화된 곳도 있다. CJ제일제당은 정부 기조에 맞춘 밀가루·설탕 가격 인가가 실적에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며, 대상은 중국산 저가 라이신 공세로 바이오 부문에서 수익성 압박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

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2분기부터 본격화된 비용 압박이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석유화학 원료인 '나프타(Naphtha)' 수급이 흔들리면서 비닐·필름·PET 등 포장재 가격이 요동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나프타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68%나 폭등했다. 이에 따라 포장재 단가는 이달 들어 20~30% 인상됐으며, 원·달러 환율이 한때 1530원까지 치솟으며 수입 원재료 부담을 가중시켰다. 특히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식품업체들은 포장재 확보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부자재 재고가 소진되는 5월이 고비가 될 것"이라며 "비닐 포장용 종이 등으로 대체하고 싶어도 설비 변경 비용과 유통기한 문제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토로했다. 수출 전선에도 비상이 걸렸다.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해상 운임이 오르고 물류가 지연되면서 3월 중동 지역 식품 수출액은 전월 대비 40%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SNS 중심의 빠른 '바이럴 트렌드' 대응 역시 수익성을 갉아먹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두바이 초콜릿'이나 '피스타치오' 등 유행 주기가 짧아지면서 기업들이 충분한 검증 없이 신제품을 쏟아내는 '추

격형 개발'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렌드에 맞춘 잦은 생산라인 조정과 원재료 수급 경쟁은 단기 매출 상승에는 기여할 수 있지만, 흥행 실패 시 재고 부담과 R&D 비용 손실로 고스란히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불확실성을 타개하기 위해 일부 기업들은 '원가 구조의 안정화'로 눈을 돌리고 있다. 지역 특산물 수급을 위해 산지와 계약을 맺어 원재료 수급 안정성과 제품 차별화를 동시에 꾀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디지털 유행이 반복되면 소비자들의 피로도가 높아질 수 있다"며 "중동 사태로 인한 생산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단순 트렌드 추종보다는 내부 효율을 높이는 전략적 대응을 꾀하는 것이 중장기적 수익 방어와 생존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원식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metro

>> 1면 '정부차원 자본시장 투자' 계속

정부, 선도사업자 신규 선정... 공급망 재편 속도낸다

한 달간 공고... 6월 마무리 계획
공급망안정화기금 우선 지원 대상

정부가 핵심 민간기업 위주로 '공급망 안정화' 정책에 속도를 낸다.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공급망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선도사업자를 지정해 수입선 다변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29일 공급망 안정화의 핵심 주체인 '선도사업자'에 대한 2026년도 신규 선정 절차에 착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선도사업자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에 따라 경제안보 품목·서비스의 도입·생산·제공 등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기업 또는 사업자단체를 가리킨다. 소관 부처의 인정을 받아 지정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이달 9일 세종 전의면의 한 필름생산업체를 찾아 공장 자동현황을 살피고 있다.

/뉴시스

2024년 6월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187개 사업자가 선정됐으며 지정기간은 최초 선정일로부터 3년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달 30일부터 한 달간 선정 계획을 공고하고, 6

월까지 최종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5월29일까지 공급망 안정화 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평가 항목에는 경제안보 품목과의 연

관성, 도입선 다변화 전략, 재무 및 이행 능력 등이 포함된다. 특히 올해는 중동발 공급망 리스크 확대를 고려해 ▲수입국 다변화 ▲국내외 생산기반 확충 ▲수입대체 기술개발 ▲비축물량 확대 등 안정화 계획을 제시한 기업을 중점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된 사업자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우선 지원 대상이 된다. 금리 우대 등의 혜택도 지원한다.

이승욱 재정부 경제공급망기획관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국내 공급망의 취약·병목 지점이 드러난 만큼 안정화와 다변화를 위한 구조개선 노력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선도사업자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metro

"상반기 중 설립방안 마련"

민간 참석자들은 기업의 성장 단계에서의 투자유치 경험과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전략산업 분야 유망기업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키워 내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장기투자 여건 마련이 절실하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금융위·산은 쪽 참석자들은 기존 정책금융·투자수단과 한국판 국부펀드가 상호 보완적으로 협력할 시 전략산업 육성, 해외사업 진출 지원,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등에서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전망했다.

민경설 재정부 실장은 "한국판 국부펀드는 전략산업 분야 유망기업에 대한 지원 투자를 통해 장기·안정적인 파트너로서 함께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 결과로 발생하는 과실을 국부로 축적해 미래 세대와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투자수단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민 실장은 "재경부는 오늘 제기된 의견을 적극 참고해 상반기 중 설립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조만간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는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상의, ESS 설치 기준 등 규제개선 필요성 제기

기업현장·민생분야 139건 정리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 현장과 민생 분야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를 정비해 기업 부담을 줄이고 국민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기업법 의견을 모아 '기업현장의 규제합리화 과제' 139건을 정리해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건의서에는 국민 생활과 기업 현장의 불합리한 애로사항, 미래 성장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 등이 담겼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고압가스 저장소 출입문 규정 충돌 문제가 제시됐다. 현행 고압가스 안전관리 규정은 가스 누출 확산 방지를 위해 출입문을 안쪽으로 닫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산업안전관리

규정은 비상시 신속한 탈출을 위해 바깥쪽으로 밀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는 하나의 문을 두고 상반된 기준을 적용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산업단지 내 창고 임대 요건도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로 지목됐다.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은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 입주만 허용되기 때문에 제조시설 없이 창고만 단독 설치하거나 별도 필지에 창고를 설치하는 데 제약이 따른다.

민생 분야에서는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재 13개 안전상비의약품 가운데 어린이용 타이레놀 80mg과 160mg은 2022년부터 생산이 중단됐지만 여전히 지정 품목에 포함돼 있어 실제 구매가 어렵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생산 중단 품목에 대한 신속한 대체품목 재선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주총회 소집통지의 전자화도 주요 개선 과제로 포함됐다. 현행 상법상 주주총회 소집통지는 서면 통지가 원칙이며 주주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전자통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사전 동의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대부분 기업이 우편 발송에 의존하고 있다. 기업들은 매년 국내 상장사가 발송하는 주주총회 우편물이 1억 장에 달한다며 주주명부에 이메일 주소를 기재하고 전자통지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래성장분야에서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기준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ESS는 안전 관리가 중요하지만 주변 시설과의 이격거리 기준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지자체별로 판단이 달라 기업들이 입지 가능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산과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증가로 ESS 설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앙정부가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자체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 담겼다.

국가전략기술 분야 대기업 연구소에 대한 전문연구요원 배정 확대도 과제로 제시됐다. 현재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운영되지만 국가전략기술 분야는 대기업 비중이 높은 만큼 대기업 부설 연구소에도 활용 범위를 넓혀야 우수 연구인력의 해외 유출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밖에도 화물용 승강기에 물류센터 용 고중량 이동로봇 탑승 시 일반 승강기 기준이 적용되는 문제와 섬유·염색업 중심 산업단지에 세탁업종 입주를 허용하는 방안 등도 함께 건의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성장본부장은 "대한상의는 AI 규제지도 시스템,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현장애로를 발굴하고, 새로운 솔루션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metro

社告

- ② 일자 : 2026년 5월 19일(화)
- ③ 장소 : 메트로경제 본사 3층 회의실
- ④ 기타 : 면접 시간은 개별 통보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6년 5월 22일(금) 본지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기타

- ① 제출된 서류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 ②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영지원실 인사담당자(☎ 02-721-9851)로 문의 바랍니다.

metro

이창용 체제 마지막 금통위 숙제... 신현송 총재 '물가의 시간'

〈전 한국은행 총재〉

4월 의사록서 물가 경계감 부각
고환율·유가궤 가격전가 우려
위원들 "인플레이션 완화에 초점"
1분기 성장 호조에 인하 명분 약화
내달 첫 금통위 신중 메시지 전망



신현송 신임 한국은행 총재가 2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창용 전 한국은행 총재의 마지막 금통위위원회가 신현송 총재에게 '물가의 시간'이란 숙제를 남겼다. 4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금통위원들이 고환율과 유가 상승, 기대인플레이션 관리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면서 신 총재의 첫 금통위는 금리 인하보다 물가·환율 안정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커졌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8일 공개된 2026년도 제7차 금통위 의사록에서 금통위원 7명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2.50%에서 동결하기로 했다. 모든 위원은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다음 통화정책 방향 결정 시까지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 금리 인하보다 물가 먼저

이번 의사록의 핵심은 동결 결정 자체보다 금통위원들의 내부 판단이다. 의사록 곳곳에서는 물가에 대한 경계감이 확인됐다.

한 금통위원은 "한은의 최우선 책무가 물가안정"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공급측 충격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위원은 "현재는 물가에 대한 판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물가 전망을 보다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통화정책의 무게중심이 다시 물가로 이동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한 위원은 "그동안 통화정책이 성장과 금융안정이라는 고려 요인 속에서 지난해 전반기까지는 경기 회복에, 이후 올해 초까지는 금융안정에 중점을 뒀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당분간은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에 초점을 맞춰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신 총재 체제의 첫 금통위가 금

리 인하 시점을 논의하는 회의라기보다 물가와 환율, 기대인플레이션의 흐름을 재점검하는 회의가 될 가능성을 키운다. 4월 의사록에 드러난 내부 기류만 놓고 보면 금리 인하를 서두르기보다 공급 충격의 지속성, 환율 변동성, 물가 전이 여부를 확인하는 데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같은 논의는 최근 거시지표 흐름과 맞물려 금리 인하론을 더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1.7% 성장해 시장 예상을 웃돌았다. 성장률만 놓고 보면 한은이 경기 부양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서둘러 낮출 명분은 약해졌다.

반면 소비자심리는 기준선을 밑돌았고, 기업심리는 일부 반등했지만 경제심리지수는 하락했다. 환율 변동성까지 이어지면서 통화정책 판단은 더 복잡해졌다.

◆ 고환율 장기화에 물가전가 우려

고환율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주요 쟁점이다. 의사록에 따르면 유가와 환율 상승이 석유류 가격 등을 통해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시차는 1개월 정도에 불과해 직접효과는 거의 즉각 반영된다. 반면 생산·유통비용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는 근원물가 전이효과는 통상 6개월 이후부터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더 중요한 것은 환율의 가격전가 효과다. 과거 사례만 놓고 보면 환율은 높은 변동성 때문에 가격전가 효과가 낮은 편이었다. 다만 지금은 고환율 상황이 과거보다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환율 상승이 물가에 미치는 효과가 이전과 달라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고환율이 단순한 외환시장 변수가 아니라 물가 전망과 통화정책 경로를 흐르는 변수로 올라선 셈이다.

금통위원들은 기대인플레이션 관리도 강조했다. 의사록에서는 일부 물가지

표의 일시적 상승이 인플레이션 기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커뮤니케이션에 유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물가 상승이 특이요인에 의한 일시적 상승이더라도 그 배경을 일반에 정확히 알려야 기대인플레이션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도 제시됐다.

시장 입장에서는 오는 5월 신 총재의 첫 금통위 메시지가 중요해졌다. 4월 의사록은 이창용 체제의 마지막 정책 판단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물가·환율 경계감은 신현송 체제의 출발점이다.

특히 주요국 통화정책 완화 기대가 약화되고 완화 약세가 물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만큼 한은의 정책 메시지도 당분간 신중론에 가까울 가능성이 크다. 한은은 다음 달 28일 신 총재 취임 이후 첫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를 연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metr

AI·딥테크 키울 벤처펀드 뜬다

모태펀드 8750억 출자 확정

중기부, 1차 정시 출자 사업 선정
60개 펀드 통해 총 1조7548억 결성
차세대 유니콘·창업초기 분야 집중

모태펀드가 8750억원을 출자해 60개 펀드를 통해 총 1조7548억원을 결성하며 벤처투자시장에 추가 활력을 불어넣는다.

3개월 이내에 결성을 전제로 하고 있어 대부분 펀드는 오는 7월 중으로 만들어질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 사업' 선정 절차를 마쳤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투자에 나선 벤처펀드 분야는 ▲차세대 유니콘 육성 프로젝트 ▲창업초기 ▲재도전 ▲청년창업 ▲여성기업 ▲임팩트 ▲세컨더리 ▲기업승계 인수합병(M&A) 등 8개다.

차세대 유니콘 육성 프로젝트의 스타트업·스케일 분야는 8244억원 규모로 선정됐다. 해당 프로젝트는 인공지능(AI)·딥테크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 스타트업)을 키우기 위해 올해 신설한 지원 프로그램이다.

전문인력이 창업한 유망 기업에 투자하는 스타트업 분야는 12개 펀드, 3744억원, AI·딥테크 기업에 평균 100억원 이상 투자를 지원하는 스케일업 펀드는 3개 펀드, 4500억원 규모로 정했다. 이를

통해 향후 결성할 유니콘 펀드, 해외진출 펀드와 함께 K-비테크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중기부는 기대했다.

창업초기 분야는 최근 초기투자 위축세를 고려해 출자 규모를 3562억원으로 확대했다. 신생·소형 벤처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를 위한 '투키리그(1684억원)'에 10개 펀드를 선정했다. 소형 분야는 548억원, 일반 분야는 1330억원이다.

재창업자의 두 번째 도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도전 펀드'는 8개 펀드, 2108억원 규모다. 올해부터는 사업 전환 속도가 빠른 스타트업 특성을 감안해 프로젝트 단위의 사업모델 전환 기업까지 투자 대상을 넓혔다.

벤처투자 시장의 투자→회수→재투자 선순환 구조를 뒷받침하기 위해 세컨더리 펀드와 M&A 펀드도 선정했다.

세컨더리 펀드는 3개, 1400억원 규모로 정했다. 세컨더리는 피투자기업의 이미 발행된 주식이나 벤처펀드 출자자(LP) 지분을 인수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중소기업의 기업 승계를 돕는 M&A 펀드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1000억원 규모로 선발했다. 이외에 '청년창업 펀드(700억원)', '여성기업 펀드(167억원)', '임팩트 펀드(367억원)'로 육성이 필요한 영역에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bada@



metr

KB금융그룹 |
세상을 바꾸는 금융

일상이 잠시 멈춰도 KB손해보험과 다시 출발

속상한 일이 생겨도 이상한 일이 생겨도
일상은, 멈춰선 안되죠

당신에게 그 어떤 일이 생겨도
일상의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KB손해보험이 곁에서 힘이 되겠습니다

[일상을 지키는 힘 | KB손해보험]

부산물까지 활용하는 ‘통합제련’ 체계… 美 테네시주로 이식

Q 르포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핵심광물 공급망을 강화해 경제안보를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다. 이번 방문을 통해 제련 산업에 대한 이해를 넓히며 프로젝트 크루서블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다”

스튜어트 맥위터 미국테네시주 부지사가 지난 28일 울산 온산제련소를 둘러본 뒤 내놓은 평가다. 그는 미국 클락스빌에 들어설 통합 제련소의 모델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방한했다.

테네시주가 이번 프로젝트에 힘을 실는 배경에는 분명한 전략적 목적이 있다. 일자리 창출과 한미 파트너십 강화,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라는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노린 선택이다. 특히 핵심광물의 안정적 조달은 미국의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평가된다.

프로젝트 크루서블은 고려아연이 테네시주 클락스빌에 총 74억달러를 투자해 통합 비철금속 제련소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오는 2029년 완공 이후에는 아연·연·동을 비롯해 인듐, 갈륨 등 핵심광물 11종을 포함한 비철금속 13종과 반도체용 황산이 생산된다. 해당 사업은 미국 연방정부의 인허가 신속화 프로그램 ‘패스트-41(Fast-41)’에도 포함됐다.

온산제련소 현장은 하나의 금속처리 도시를 방불케 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전경.

테네시주 부지사 온산제련소 방문 일자리·한미협력·공급망 효과 기대

74억 7400만 규모 ‘프로젝트 크루서블’ 비철금속 13종·황산 등 현지 생산

설비들이 이어지고, 공정은 끊임 없이 맞물려 돌아갔다. 이곳의 핵심은 원료에서 버려지는 금속을 최소화하는 ‘회수 중심 구조’다. 각 공정에서 나온 부산물을 다시 회수해 인듐·게르마늄 등 유기금속으로 재가공하고, 산화물과 분진까지 공정으로 되돌려 활용한다.

이 같은 구조는 현장에서 그대로 확인됐다. 인듐 생산 공정에서는 아연과 연 생산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에서 핵심광물을 추출한다. 전종빈 고려아연 전자소재팀 책임은 “아연정광과 2차 원

료, 연정광에 포함된 미량의 인듐을 공정 중간에서 분리해 정제한다”며 “아연정광 1톤에는 평균 약 100g 수준의 인듐이 포함돼 있고, 제품 생산까지 약 90%가 회수된다”고 설명했다. 연간 생산능력은 100톤 수준이다.

인듐은 주로 디스플레이용 ITO 소재와 반도체 소재로 쓰인다. 대부분 미국, 유럽, 대만 등으로 수출된다. 국내에서는 고려아연이 유일하게 원료 단계에서 인듐을 직접 추출해 생산하고 있다. 중국의 공급 통제 영향으로 수요는 꾸준히 늘어나는 흐름이다.

아연 주조공장에는 1톤짜리 슬래브가 줄지어 쌓여 있었다. 슬래브는 날개 25kg 단위로 구성되며, 아연 생산의 마지막 단계에서 만들어진다.

아연은 배소, 조액, 정액, 전해, 주조



스튜어트 맥위터 테네시주 부지사(맨 왼쪽)가 고려아연 온산제련소를 둘러보는 모습. /고려아연

등 5단계를 거쳐 생산된다. 약 950도에서 원료를 산화시키는 배소 공정을 시작으로, 황산 용액에 침출해 아연을 녹이는 조액, 불순물을 제거하는 정액을 거친다. 이후 전기분해로 금속 아연을 회수하고, 마지막 주조 공정에서 고순도 제품으로 완성된다.

주조공장에서는 전기유도로 기반 용해 설비와 자동화 라인이 눈에 띄었다. 아연 주조공장에서는 만난 이성준 주조팀 책임은 “버너 방식보다 분진 발생이 적고 회수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라며 “발생한 분진은 집진기를 통해 다시 포집되고, 산화물 역시 별도 공정으로 보내 재활용된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은 지난해 10월 무인지게차를 도입해 현재 3대를 운영 중이며, 최근에는 현대자동차와 협력해 수소지게

차 12대도 투입했다. 용해로와 주조기뿐 아니라 무인지게차, 집진 설비 등 주요 설비도 미국 제련소에 유사한 형태로 적용할 예정이다.

현장에서는 게르마늄 공장 신설 예정 부지도 공개됐다. 해당 부지는 현재 복토 작업이 진행 중이며 오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록히드마틴과의 공급 협력도 언급되며 향후 활용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제기됐다.

이날 확인된 온산제련소의 공정과 설비는 미국으로 옮겨진다. 원료부터 부산물까지 금속을 최대한 회수하는 통합 제련 모델을 현지에 구축하는 사업이다.

/울산=유혜은 기자

dhaledhale@metroseoul.co.kr



metro

LS일렉트릭, 3190억 규모 배전솔루션 계약

글로벌 전력기업 블룸에너지와 체결 북미 대형 프로젝트 수주 잇따라 공급망 확대로 현지생산 비중 강화

LS일렉트릭이 북미 빅테크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시장에서 대형 수주를 이어가고 있다.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데이터센터 전력 사용량이 빠르게 늘면서 배전반과 변압기 등 핵심 설비 공급 경쟁을 확보한 LS일렉트릭의 추가 수주 기회도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LS일렉트릭은 글로벌 전력 기업 블룸에너지와 약 3190억원 규모의 배전 솔루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미국 뉴멕시코주에 조성되는 메이저 빅테크 기업의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사업으로, LS일렉트릭은 배전반과 변압기 등 주요 배전 시스템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 수주는 LS일렉트릭이 북미 데이터센터 전력 솔루션 시장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잇달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LS일렉트릭은 이달 1700억원 규모의 메이저 빅테크 데이터센터 전력 솔루션 구축 사업을 수주한 데 이어 추가 계약까지 따내며 북미 시장 내 입지를 넓히고 있다.

수주 확대는 실적에도 반영되고 있다. LS일렉트릭은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1조3766억원, 영업이익 1266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1분기 최대 실적을



LS일렉트릭이 글로벌 전력 기업 블룸에너지(Bloom Energy)와 약 3190억원 규모 배전 솔루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이 미국 유타주 MCM엔지니어링 II에서 회사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LS일렉트릭

달성했다. AI 데이터센터와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가 맞물리면서 전력기기 부문의 성장 기반도 강화되고 있다.

데이터센터는 24시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요한 시설인 만큼 고효율·고신뢰성 배전 설비와 빠른 납기, 유지보수 대응 역량이 핵심 경쟁력으로 꼽힌다. LS일렉트릭은 품질 경쟁력과 고객 대응 역량을 기반으로 북미 시장에서 프로젝트 레퍼런스를 확대하고 있다.

현지 생산 기반 강화도 병행하고 있다. LS일렉트릭은 미국 유타주와 텍사스주 거점을 중심으로 공급망을 확대하고 현지 생산 비중을 높이고 있다. 북미 데이터센터 발주처들이 납기 안정성과 현지 대응 역량을 중요하게 보는 만큼 생산·공급 체계 고도화가 추가 수주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다.

차세대 데이터센터 전력 솔루션으로 꼽히는 직류 배전 사업도 확대하고 있다. 직류 배전은 전력 변환 단계를 줄여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어 데이터센터

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LS일렉트릭은 저압직류배전(LVDC) 솔루션과 천안 사업장 내 차세대 직류(DC) 팩토리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시장 선점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북미 전력 시장은 AI 데이터센터 확산을 계기로 송전 인프라뿐 아니라 배전 인프라 투자까지 확대되는 양상이다. 기존에는 발전소와 변전소를 잇는 초고압 설비 투자가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데이터센터와 마이크로그리드 등으로 수요가 넓어지고 있다.

LS일렉트릭 관계자는 “미국 데이터센터 시장은 AI 확산과 전력 수요 증가로 배전 인프라 투자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현지 공급망 확대와 파트너십 강화, 차세대 직류 솔루션 등 핵심 기술 역량을 앞세워 북미 시장에서 대형 수주를 확대하고 성장세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metro

한국콜마 등 11곳 신규 대기업집단 편입

» 1면 ‘공정위, 쿠팡 총수…’서 계속

하지만 작년 쿠팡의 개인정보대량 유출 사태를 계기로 올해 초 실시된 쿠팡 본사 현장 조사에서 공정위는 김 의장의 동생 김유석 씨가 부사장(Vice President)급으로 재직하며 물류·배송 정책 등 핵심 의사 결정에 깊숙이 관여한 사실을 파악했다.

최정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유석 씨는 보수 수준이 등기임원에 준하고 비서가 배정되는 등 경영 실권이 명확하다”며 “물류·배송 정책 관련 회의를 수백 회 이상 주최하고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를 ‘친족의 경영 참여가 없을 것’이라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예외 요건을 불충족하는 것으로 봤다.

공정위가 쿠팡의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변경한 건 2021년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후 5년 만이다.

동일인이 법인에서 자연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쿠팡 동일인과 그 친족(특수관계인)이 일정 자본 이상 보유한 국외 계열사를 공시해야 하고,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사익편취 행위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공정위는 쿠팡이 김유석 씨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점이 공시자료 허위 제출인지, 제재가 필요한지 살펴보고 있어, 쿠팡 법인이거나 김 의장

을 고발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입장문을 통해 사익편취 우려가 없다면서 행정소송을 통한 소명을 예고했다.

쿠팡 측은 “쿠팡Inc는 한국 쿠팡 법인을 100% 소유하고, 한국 쿠팡도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100% 소유한 투명한 지배구조”라며 “김범석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쿠팡은 향후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신규 대기업집단으로 11개 집단이 추가됐는데, K-뷰티, K-푸드 등 한류 영향이 고스란히 나타났다.

한국콜마는 화장품·제약 사업의 성장으로, 오리온은 해외 매출 호조에 힘입어 대기업 반열에 올랐다. 증권가 활황세 속에 토스도 대기업집단에 합류했으며, 교직원공제회는 공제회 중 사상 처음으로 대기업집단에 편입됐다.

인수합병(M&A)을 통한 순위 상승도 뚜렷했다. 웅진은 프리드라이프 인수로 재진입했고, 교보생명보험은 SBI저축은행 인수로 자산 12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진입했다. 티웨이항공을 품은 소노인터내셔널과 애경산업을 인수한 태광 역시 큰 폭의 순위 상승을 기록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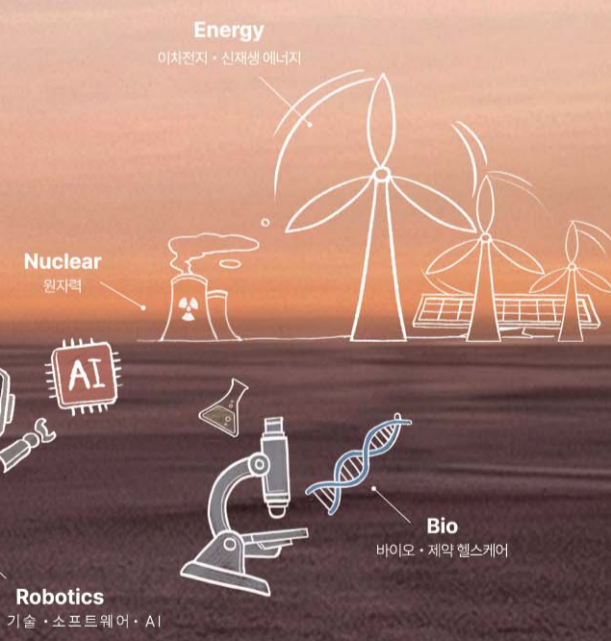
금융을 편리하게
미래를 풍요롭게

BNK금융그룹이 두근두근한 생산적 금융의 미래를 향해 달립니다

꿈꾸는 아이부터 내일을 짓는 기술자까지,
우리 사회의 모든 가치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BNK금융그룹의 생산적 금융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지역 경제의 꿈이 현실이 되는 여정에 끝까지 함께합니다

2026 - 2030년 5년간 총 55조 규모 생산적 금융지원



BNK금융그룹 생산적 금융 주요 추진사업



국가 첨단 전략산업 금융 지원



국민성장펀드 참여 확대



동남권 지역특화산업 육성



그룹 중심 스타트업 통합 지원

BNK 부산은행 BNK 경남은행 BNK 캐 피 탈 BNK 투자증권 BNK 저축은행
BNK 자산운용 BNK 벤처투자 BNK 신용정보 BNK 시 스 템 BNK 씬농구단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금융 **BNK** 금융그룹

이 대통령 “대외문제 자해적 행위 안돼”… 통합 정치 시동

비교섭단체 5당·무소속 의원 초청
외교·안보서 정쟁 자제, 협력 강조
의원들, 부동산·노동권 문제 등 건의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국회 비교섭단체 5당과 무소속 국회의원들을 만나 “국내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라 다투더라도, 대외 문제에서 자해적 행위를 하는 경우는 찾기 쉽지 않다”며 “아쉽게도 우리 안에는 그런 요소들이 조금은 남아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비교섭단체에 무소속 의원들까지 청와대로 초청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진영을 아우르는 통합 행보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우리 국민 모두가 알고 계신 것처럼 대외적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외교·안보 분야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이날 오찬에는 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비교섭단체 5개 당과 무소속 의원 등 21명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정식 정무특보, 홍익표 정무수석 등이 자리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지방 일정,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국회 상임위원회 일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국회의원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박수를 치고 있다. /뉴스

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상황도 매우 혼란스러웠지만 그것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며 “그러나 대외 환경이 악화되는 문제는 사실 우리만의 힘으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이어 “이런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가기 위해 특히 국내에서 대외 관계를 바라볼 때 입장을 공적으로 가져주시면 좋겠다”면서도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라고 말해 참석자들이 웃음을 터트렸다.

또 참석자들에게 정치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국가의 미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정치를 본질적으로 남의 일을 대신하는 거라고 생각하

는데, 각자의 정치적 신념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국가나 국민들의 더 나은 삶과 미래”라면서 “그래서 정치에서는 넓은 시야가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작은 차이들과 각자의 이익도 있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어떤 게 더 나은지를 고민하고 또 누가 더 잘하나를 경쟁해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게 진정한 정치가 아닐까 생각한다”면서 “국민께서는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치가 통합의 역량을 발휘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물론 그중 가장 큰 책임은 저에게 있다. 저도 노력하겠다”며 “모두가

함께 노력해서 국민의 힘을 모으고,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슬기롭게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가장 먼저 발언을 시작한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지방균형 발전과 함께 수도권 외곽 지역도 살피달라면서 “특히 안보를 이유로 희생하고 있는 경기 북부와 평택 등 지역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서 원내대표는 평택 시민들이 큰 희생을 감내하고 있다며 미군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 특별법’의 확대가 필요하고, 상시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전날(28일)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교사 소풍 기피’ 발언과 관련해 ‘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 추진을 건의했다. 천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 일선 선생님들이 민원을 받지 않고 신경 안 써도 되는 민원 처리 시스템의 문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선생님들이 경찰서나 법원을 다니지 않게 하는 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를 추진해준다면 교육 현장이 훨씬 더 활기차고 학생들이 다양한 성장의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 밝히신 부동산 정상화 의지에 깊이 공감한다”며 “조세 형평성 훼손은 물론 매물 잠김을 초래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반드시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임차인 권리 보장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겸 원내대표는 구광 문제를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한 대표는 “구광 문제는 단순한 국민의 수천만의 개인 정보가 털린 것뿐만 아니라 실제 소상공인에 대한 갑질 문제나 노동권 훼손 문제가 매우 심각한 기업의 문제”라며 “외교적인 사안을 넘어서서 국내에서 반드시 책임 있게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metro

부산·아산으로… 민주, 하정우·전은수 영입

‘AI·국정통’ 앞세워 재보선 승부수
정청래 “새로운 희망이 될 분들”

더불어민주당이 하정우 전 청와대 AI 수석을 6·3 국회의원 재보선 2호 영입 인사로 발표했다. 하정우 전 수석은 민주당 소속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 지역 구인 부산 북갑 출마가 예상된다. 3호 인사로는 전은수 전 청와대 대변인을 발탁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인재영입식을 열고 “민주당의 새로운 희망이 될 두 분”이라며 하 전 수석과 전 전 대변인을 소개했다. 그는 “하 전 수석은 제가 삼고초려를 넘어 ‘삼십고초려’를 해서라도 반드시 모셔 오고 싶었던 인재”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하 전 수석은 모두가 가지 않던 인공지능이라는 외길에 매진해 네 이비에 아시아 최고 수준의 AI 연구소

를 세운 입지전적 인물”이라며 “대한민국 AI 3대 강국의 설계자이고 AI 역량이 곧 국력이 이 시대 우리 국가 미래 비전을 완성할 필수카드”라고 했다.

정 대표는 “지금 부산에 필요한 것은 미래를 읽는 전략적 사고와 혁신을 실현할 유능함”이라며 “하 전 수석이야말로 부산의 재도약을 위한 최적임자”라고 했다.

하정우 전 수석은 이날 “첫 AI 수석으로서의 국가 AI 전략 수립의 소임을 마치고 부산으로, 국회로 가려고 한다”며 “꼭 찬 마흔아홉의 나이에 고향으로 돌아가 새로운 부산과 북구 시대를 위해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많이 떨린다”고 했다.

이어 “해양수도라는 비전과 부울경 경제 기적을 만든 제조업 신화가 AI를 만나 새로운 미래를 만들 것”이라며 “지금 이 대전환과 대도약의 골든타임이

다. 이재명·전재수·하정우가 만드는 새로운 성장을 지켜봐 달라. 이 한 몸 부서지도록 일하겠다”고 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3호 인재로 발탁된 전은수 전 대변인에 대해서는 “국정의 심장부에서 단련된 리더”라며 “이재명 당대표 시절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당을 지켰고,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는 중앙선대위 청년본부장을 맡아 승리의 기쁨을 닦았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 국정 철학과 정책 비전을 국민의 언어로 명확하게 전달해 왔다”며 “지방에서 나고 자라 지역 소멸의 아픔을 누구보다 깊이 체감해 왔기에 지역을 살리고 균형 발전을 이끄는 데 있어 그 누구보다 절실한 마음을 가진 유능한 적임자”라고 했다.

전 전 대변인은 이날 자신을 ‘이재명 대통령의 대변인’이라고 소개한 뒤 “(이제는) 국민의 삶을 대변하겠다”고



하정우(왼쪽)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과 전은수(오른쪽) 전 청와대 대변인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차 인재영입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

했다. 그는 “이제 브리핑룸의 마이크 뒤가 아니라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 국민의 숨결을 직접 듣고 더 가까운 곳에서 답을 찾자 한다”고 했다.

이어 “국정의 맥을 짚어본 경험, 중앙 정치의 정무적 흐름을 꿰뚫는 식견을 오롯이 민생 현장에 쏟아부겠다”며 “국정 경험의 실력으로 확실한 결과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충남 아산 출마가 예상된다. /김보민 인턴기자 kbm@

與, 정년연장 논의 재개 “상반기 법제화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노동계와 간담회를 여는 등 정년 연장 논의를 재개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올해 상반기 법제화를 목표로 정년 연장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특위)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노동자 노년노동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특위는 지난해 12월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3가지의 안을 노사에 제시한 바 있다. ▲2028년부터 2036년까지 2년 간격으로 1년씩 정년을 연장(1안) ▲2029년부터 2039년까지 2~3년 주기로 1년씩 연장(2안) ▲2029년부터 2041년까지 3년마다 1년씩 연장(3안)하는 방안이다.

이에 대해 특위 위원장인 소병훈 의원은 “여러논의가 있어왔지만, 이제 그간 논의를 토대로 현장과 함께 해법을 구체화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결론에 다다르지 못한 건 우리 국회에서 선거법을 통과시킬 때 여야 합의로 하는 게 중요한 문제인 것처럼, 정년 연장도 관련된 각 단체들이 함께 해주는 안을 만들려다 보니까 (법제화 시점이) 늦어지고 있다”고 양해를 구했다.

이어 “모두가 찬성하고 모두가 동의하는 법을 만들지 못하면, 그래도 어느 쪽에서도 반대하지 않는, 일부 동의할 수 있는 법이라도 만들어 출발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며 “여러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최소 이견’을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보민 인턴기자

與 광역단체장 출마 의원 8명 일괄 사퇴

전국 14곳서 재보선 실시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로 선출된 현역 국회의원들이 29일 의원직을 내려놨다. 이로써 지방선거와 동시에 열리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국면도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이번 재보선은 전국에서 총 14곳에서 실시되는 사실상 ‘미니 총선’ 급이라는 평

가를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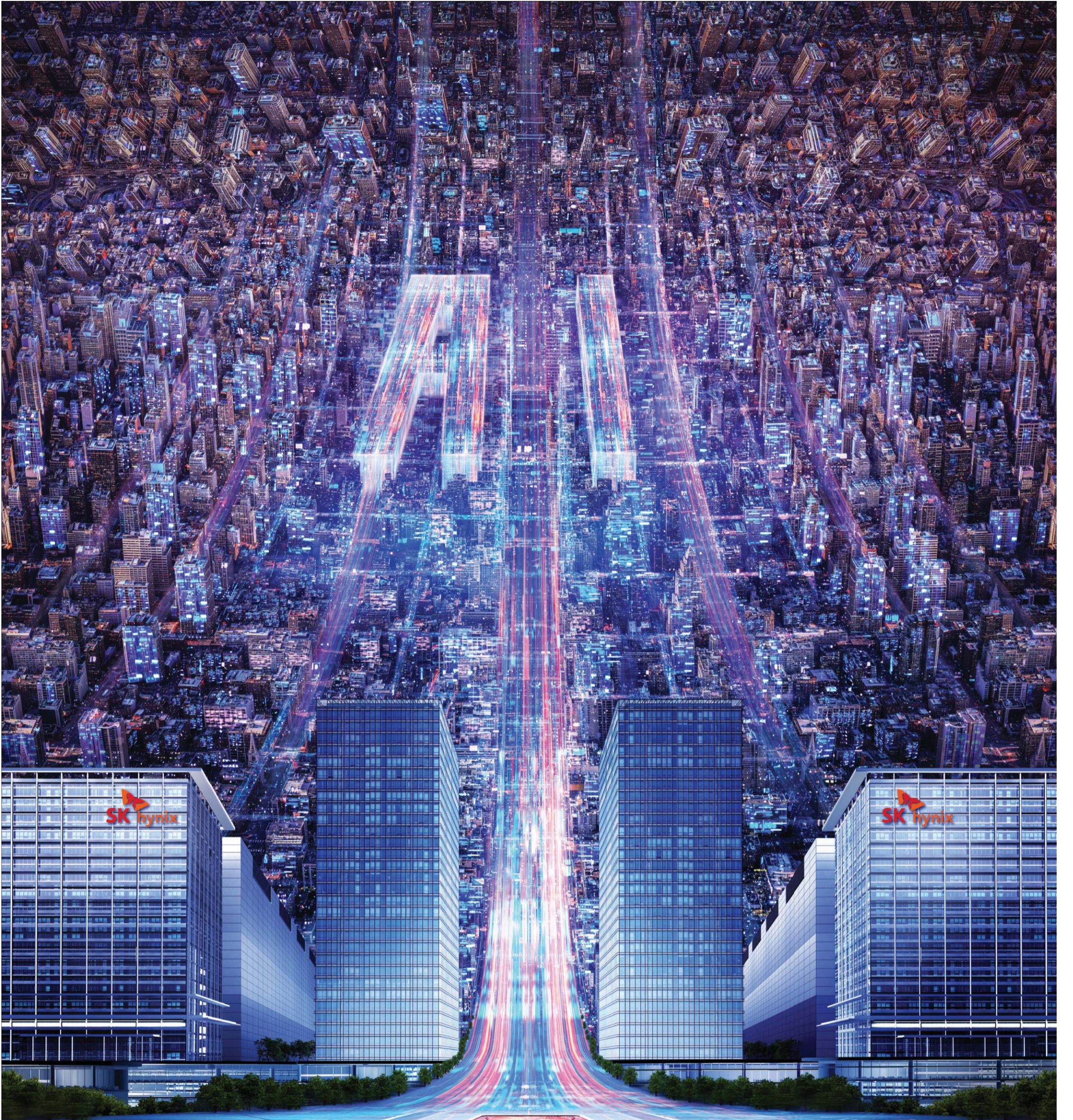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광역단체장에 출마하는 의원 8명이 의원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의원 사퇴서를 제출한 현역 의원은 ▲울산 남갑 김상욱 ▲인천 연수갑 박찬대 ▲경기 하남갑 추미애 ▲부산 북갑 전재수 ▲전북 군산-김제-부안을 이원택 ▲광주 광

산을 민형배 ▲충남 공주-부여-청양 박수현 ▲제주 서귀포 위성곤 등 8명이다. 국회의장이 제출된 사임계를 수리하면 사퇴 절차가 마무리 된다.

이날 민주당 의원 8명이 사퇴하면서, 민주당 의원직 상실로 재보선이 열리는 곳은 총 13곳이다. 이날 의원직을 내려놓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군)을 합하면 총 14곳으로 늘어난다. 이에 ‘미니 총선’ 급 재보선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여야 모두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앞서 재보선이 확정된 5곳은 경기 평택과 안산갑,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인천 계양을, 충남 아산을이다. 경기 평택과 안산갑,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은 각각 이병진·양문석·신영대 전 민주당 의원이 범민 관결로 인한 의원직 상실로 공석이 됐다. 인천 계양을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 충남 아산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대선 이후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비었다.

/서예진 기자



시 대 전 환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곳에서 새로운 AI 시대가 펼쳐집니다

We Do Technology
 첨단기술의 중심,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공급망 금융 넘어 문화플랫폼 접수... 우리은행, 영향력 확장

상생형 티켓플랫폼 '2TM' 출범
 중소기업 지원 '원비즈플라자'
 작년 가입회원사 10.5만곳 넘어
 공연 창작자-관객 연결 '2TM'
 문화예술 생태계 동반성장 목표

우리은행이 고객과의 동반 성장을 추구하는 '상생 플랫폼'을 확대한다. 지난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전산화를 지원하는 '원비즈플라자'를 확대 구축한 데 이어, 올해는 상생형 티켓플랫폼 '투더문(2TM)'을 출범해 비(非) 금융 영역에서도 영향력을 넓힌다. 매출 성장과 사회공헌 확대를 동시에 겨냥한 행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해 7월 중소기업 지원 플랫폼 '원비즈플라자'를 확대 개편한 데 이어 지난 23일 상생형 중개 플랫폼 '2TM'을 오픈했다.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상생 플랫폼'을 통해 여·수신 업무에 치중했던 기존 매출 구조를 다각화하는 한편, 충성 고객을 확보해 장기 성장 동력도 확보한다는 목표다.

◆ 중기지원 플랫폼 '원비즈플라자'



정진완 우리은행장이 지난해 7월 '포용적 성장 플랫폼과 금융복지서비스 간담회'에서 원비즈플라자를 소개하고 있다. /우리은행

우리은행이 지난 2022년 9월 출시한 '원비즈플라자'는 별도의 비용 없이 ▲ 구매 요청 및 견적·입찰 ▲ 발주 ▲ 검수 등 구매와 관련된 업무를 디지털화할 수 있도록 돕는 중소기업 지원 플랫폼이다. 특히 기업 간 소통 창구와 거래 시스템도 제공하며, 표준화된 양식도 제공해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과 노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자금 결제, 예치 및 인출 등을 기업금융 서비스와 결합한 '공급망 금융'은 금융권에서 보편화된 개념이지만, 우리금융은 여기에 '상생금융'을 결합했다. 비용에 부담을 느끼기 쉬운 중소기업의 전산화를 지원해 고객사로 확보하는 한편, 별도의 경영 솔루션을 제공해 고객사의 성장도 지원한다. '원비즈 e-MP'나 '우리CUBE데이터' 등 연계된 서비스 및 상품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거래가 상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가교'의 역할도 수행한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7월 '원비즈플라자'의 확대·개편 발표 당시 중소기업 지원 규모를 적극 늘리고, 지난해 10만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원비즈플라자에 가입한 회원사는 지난해 말 기준 10만5000개를 넘겼으며, 원비즈플라자를 통한 전자계약건수도 빠르게 늘어, 지난해에만 약 5만건의 전자계약이 원비즈플라자에서 체결됐다.

앞서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원비즈플라자의 확대 개편 발표 당시 "대한민국

의 99%는 중소·중견기업으로, 중소기업은 공급망·결제망·금융 지원 등 핵심 인프라를 자체적으로 갖추기 어렵다"며 "우리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구축한 공급망 금융 플랫폼 원비즈 플라자를 통해 기업 규모나 업종과 관계없이 상생하며 포용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상생형 티켓플랫폼 '2TM'

우리은행이 최근 출시한 '2TM'은 공연 창작자와 관객을 연결하는 문화 플랫폼이다. 기존 티켓플랫폼에서 제공하던 예매 기능은 물론, 동선별·지역별 공연 탐색 기능을 통해 다양한 공연을 탐색할 수 있도록 했다. 공연 창작자가 관객과 보다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아티스트 인터뷰, 비하인드 스토리 등 콘텐츠 페이지도 제공한다.

2TM은 '문화예술 생태계와의 동반성장'을 목표로 한다. 창작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를 최소화했으며, 비용을 이유로 기존 티켓 플랫폼 이용이 어려웠던 중소 공연기획사와 신진 아티스트를 위한 '미니스테이지'도 운영한다. 미니스테이지 내에서는 별도의 홍보 채널과 독립적인

예매 인프라를 제공하고, 포스터 디자인을 비롯해 각종 홍보도 지원한다. 관객이 대표 시 부담하는 수수료도 기존 티켓 플랫폼과 비교해 절반 이하로 낮췄다.

또한 2TM은 기존 우리은행 웹뱅킹·모바일뱅킹과 분리된 별도의 전용 서버를 통해 운영되며, 유량 제어 시스템과 매크로 방지 솔루션을 통해 보다 공정한 예매 환경을 구축했다. 2TM을 통해 공연 관람을 희망하는 관객들에게 보다 공정한 접근 기회를 제공한다는 목표다. 2TM의 유지보수는 우리은행 내의 전문인력들이 직접 수행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소규모 공연은 비용 등을 이유로 티켓플랫폼을 통한 판매가 어려운 만큼, 2TM은 '미니스테이지'를 통해 신진 아티스트나 중소 공연기획사에도 공연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면서 "공연자들에게는 포스터 디자인 지원이나 홍보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하고, 예매자들의 수수료 부담도 낮춰 '상생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안송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metro

5부제 참여 차량 보험료 환급... 손보사 '수익성 부담'

계약 만기시 보험료 2% 환급 방식
 손보사, 지난해 7080억 적자 기록
 특약부담 연간 2400억 수준 예상

중동 상황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대응을 명분으로 차량 5부제 참여자에게 자동차보험료를 환급하는 특약이 다음 달 도입될 예정이어서 손보업계의 타격이 예상된다.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로 손보업계가 지난해 7000억원대 보험손익 적자를 낸 상황에서 상생 특약이 수익성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업계는 지난 27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차량 2·5부제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할인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와 정치권은 국

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에너지 절약 참여를 유도하고, 가계 부담을 낮추는 차원에서 차량 5부제 특약을 도입키로 했다.

차량 5부제 특약은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정해진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으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할인율은 연간 보험료의 2%다. 보험료를 처음부터 깎아주는 구조가 아니라 기존 자동차보험 계약 만기 시점에 5부제 참여 기간을 계산해 환급하는 방식이다.

만약 자동차보험료 70만원을 낸 가입자가 1년 동안 차량 5부제 특약을 유지하면 만기 때 1만4000원을 돌려받는다. 기존 주행거리 할인 특약과 중복 가입도 가능하다. 보험사들은 오는 5월 11일 주 중 특약 가입 신청을 우선 접수하고, 상품 개발과 전산 구축을 거쳐 5

월 18일 주 이후 정식 가입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문제는 손보업계의 자동차보험 수익성이 이미 악화된 상황에서 추가 할인 부담이 얹힌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보험손익은 708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7.5%로 전년 대비 3.7%포인트(p) 상승했고, 손해율과 사업비율을 더한 합산비율은 103.7%로 손익분기점인 100%를 넘어섰다.

자동차보험 총손익도 급감했다. 투자손익을 포함한 지난해 자동차보험 총손익은 951억원으로 전년 대비 83.9% 줄었다. 자동차보험료 인하 효과로 보험료 유입은 줄어든 반면, 경상 환자 치료비와 자동차 부품비, 정비공임 등 손해액 부담은 커진 영향이다.

이런 상황에서 차량 5부제 특약은 손

보사 입장에서는 또 다른 비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가입자 1인당 환급액은 크지 않지만, 대상이 약 1700만대로 많은 만큼 실제 참여율에 따라 업계 전체 부담은 커질 수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특약에 따른 손보업계 부담이 연간 약 2400억원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운행기록 검증도 과제로 꼽힌다. 5부제 참여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금은 정상 지급된다. 다만 5부제 미준수가 확인되면 특약 할인은 적용되지 않고, 다음 해 특별 할증이 붙을 수도 있다.

보험사들은 특약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운행기록 앱이나 기존 주행거리 특약 정보, 커넥티드카 정보 등을 활용해 5부제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김주형 기자 gh471@

MG새마을금고재단 지역사회 상생 확산 '온정나눔행사' 추진

MG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
 'MG 온정나눔행사 지원사업'
 을 추진한다고 29



일 밝혔다. 지역 내 공동체 문화 확산과 더불어 지역사회 상생과 연대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MG 온정나눔행사 지원사업은 새마을금고재단의 대표적인 지역 밀착형 사회 공헌 사업이다. 복지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사회복지시설이 직접 기획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한다. 지역별·대상별 특성을 고려해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지원 사례로는 ▲가정의달·어버이날 맞이 특식 지원 ▲저소득 아동 여름 캠프 지원 ▲문화 소외 지역 공연 지원 ▲중증 장애인들이 지원 등이 있다.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참여자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정서적 활력을 제공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새마을금고재단은 지난해에도 온정나눔행사 지원사업을 실시해 전국 78개 사회복지시설에 3억9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지원 규모를 확대해 지난 3월 기준 80개 기관에 총 4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했다.

김인 새마을금고재단 이사장은 "온정나눔행사는 지역 복지시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현장의 필요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힐스테이트 선암호수공원' 선착순 계약

작년 울산 아파트 매매가 2.1% 상승
 미분양 60% ↓, 감소율 전국 최대

울산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면서 분양 단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 아파트 매매가격은 연간 2.1% 올랐다.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다. 올해 들어서는 4월 첫째주 기준 누적 집값 상승률 1.68%로 서울에 이어 전국 2위를 기록하는 등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미분양 물량도 빠르게 해소되는 분위기다. 울산의 미분양 물량은 2025년 2월 3811가구에서 올해 1월 1402가구

로 60% 이상 줄었다. 감소율로 보면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다.

거래 가격도 반등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울산 남구 신정동 '문수로대공원에일린의뜰'의 전용면적 84㎡는 올해 1월 12억원으로 신고가를 기록했다. 작년 2월 9억9000만원대에서 2억원 이상 올랐다.

현대건설은 울산 남구 야음동 일원에 공급하는 '힐스테이트 선암호수공원'을 선착순 동·호 지정 계약을 진행 중이다. 단지는 지하 6층~지상 최고 44층, 총 753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아파트 631가구와 오피스텔 122실로 구성된다.

단지는 수요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힐스테이트 선암호수공원.

/현대건설

낮추기 위해 총 계약금 5% 조건을 적용했다. 1차 계약금은 500만원으로 책정됐으며, 일부 세대에 한해 별도의 계약 조건 혜택이 제공된다.

입지적으로는 인근에 선암호수공

원이 위치해 주거 쾌적성이 높고, 야음초등학교를 도보로 통학할 수 있는 학세권 입지를 갖췄다. 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될 경우 교통망은 더 개선된다.

/안상미 기자 smahn1@

LG전자, HS·VS 합산 매출 10조 돌파... 영업이익 3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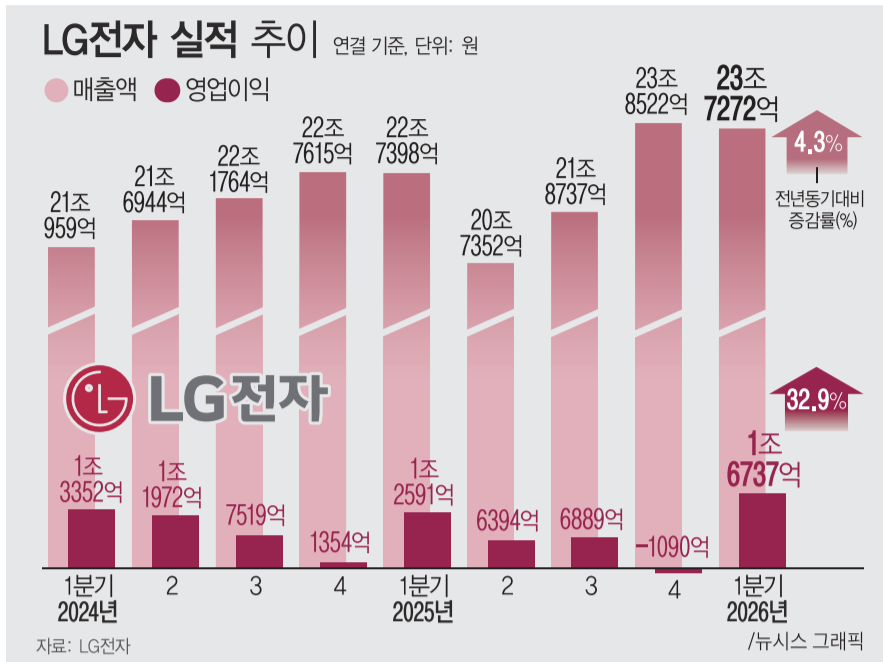
(가전·전장)

1분기 매출 23.7조... 전년비 4.3% ↑ 생활가전 등 프리미엄 리더십 주효 B2B·플랫폼·D2X 사업 성장 지속

LG전자가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도 생활가전과 TV 등 주력 사업의 프리미엄 리더십을 바탕으로 호실적을 냈다. 기업 간 거래(B2B) 성장의 핵심 축인 전장 사업도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갔다. 특히 생활가전을 담당하는 HS사업본부와 전장 사업의 VS사업본부 합산 분기 매출은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섰다.

LG전자는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1조6737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32.9%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9일 공식했다. 매출은 23조7272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4.3% 증가했다. 순이익은 1조51억원으로 14.8% 늘었다.

수익성 기반 질적 성장을 견인하는 B2B, 플랫폼, D2X 사업 성장도 지속됐다. 1분기 B2B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19%, 전년 동기 대비 1% 늘어난 6조



5000억 원이다. 전사 매출에서 B2B 사업군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36%를 기록했다. 제품과 서비스 매출을 포함한 구독사업의 1분기 매출은 전분기 대비 8%, 전년 동기 대비 15% 늘어난 6400억 원을 기록했다.

사업부문별로 보면 HS사업본부 매출액 6조 9431억원, 영업이익 5697억 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전 분기를 통틀어 최대치다. 손익 측면에서도 원자재가격 상승과 미국 관세 영향이 있었지만 8.2%의 견조한 수익성을 기록했

다. 시장 수요 변화에 맞춰 프리미엄과 볼륨존을 동시에 공략하고 온라인, 가전구독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주효했다. 2분기는 제품 라인업 강화, 글로벌 사우스 공략 등으로 매출 성장세를 이어간다.

TV·모니터 등을 담당하는 MS사업본부는 매출액 5조 1694억원, 영업이익 3718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대폭 늘었고, 전분기 대비로도 흑자 전환했다. 프리미엄 판매 호조와 webOS 플랫폼 사업 성장에 마케팅비용 효율화, 고경비 축소 등 노력이 더해졌다. 2분기는 스포츠이벤트 대응과 수익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사업을 운영한다.

VS사업본부는 매출액은 3조 644억원, 영업이익은 2116억원이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전 분기를 통틀어 최대치를 경신했다.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솔루션의 프리미엄화와 적용모델 확대 추세에 유럽 완성차 업체를 중심으로 판매가 늘었다. 특히 분기 영업이익률은 분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6%를 크게 상회했

다. 이는 전장 사업이 수주기반의 안정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주력사업인 생활가전에 이어 B2B 분야 안정적인 캐시카우 사업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라 전사 사업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의미도 매우 크다.

공조사업을 담당하는 ES사업본부는 매출액 2조 8223억 원, 영업이익 2485억 원을 기록했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과 핵심사업 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 증가 등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줄었다. 북미 유니터리, 유럽 히트펌프 등 지역 맞춤형 제품 판매와 설치·운영·유지보수 등 Non-HW 기반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랭식 외 차세대 기술인 액체냉각 등으로 라인업을 확대한 통합 솔루션으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냉각솔루션 사업 기회 확보도 주력한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metro

“히트펌프 기술 기반 탄소중립 시장 공략”

삼성전자 미디어 브리핑

국내 기후특성에 맞춰 최적 작동 “전기 난방화 전환 핵심역할 수행”

“삼성전자 히트펌프는 전기 난방화 전환과 탄소 중립을 위한 핵심 솔루션이다. 안정적 난방 성능과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혁신을 지속하겠다.”

송병하 삼성전자 DA사업부 그룹장은 29일 서울 중구 삼성전자 기자실에서 열린 ‘히트펌프 기술 미디어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글로벌 탄소중립 기조와 전기 난방 전환 정책이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관련 신제품 출시와 서비스·인프라 구축을 통해 관련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선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 히트펌프 솔루션은 대용량 열교환기가 탑재됐고 압축기 내부 밸브가 한층 효율적인 구조로 설계돼 압축과 정에서의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한다.

삼성전자는 이 같은 히트펌프 기술력을 집대성해 지난 20일 성능과 효율, 탄소 저감을 모두 강화한 한국형 ‘EHS 히트펌프 보일러’ 신제품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공기의 열을 물로 전달하는 ‘에어 투 워터(A2W)’ 방식을 채택해 온돌 주거 문화에



송병하 삼성전자 생활가전(DA) 사업부 에어 솔루션팀 그룹장이 29일 중구 태평로빌딩에서 열린 미디어 브리핑에서 한국형 ‘EHS 히트펌프 보일러’를 신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최적화했으며, 기존 보일러 시스템과 호환성이 높아 설비 변경 부담이 적다.

아울러 삼성전자의 히트펌프 솔루션은 외기 온도 및 운전 조건에 따라 시스템을 최적 제어해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안정적인 난방 성능을 유지한다. 특히 국내 기후 특성에 맞춰 영하 25도 극저온 환경에서도 동작이 가능하며 영하 15도에서도 최대 70도의 고온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여기에는 냉매 분사 방식인 ‘플래시 인젝션’ 기술

과 고효율 압축 기술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국내 아파트 중심 주거 환경에 맞춘 히트펌프 적용 솔루션 개발도 검토 중이다. 송 그룹장은 “현재 제품은 단독주택에 최적화돼 있지만 고층 아파트 적용 확대를 위해 삼성물산과 함께 하중·전력량 등 구조적 제약을 고려한 최적 솔루션을 연구하고 있다”며 “향후 관련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회사는 글로벌 히트펌프 시장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히트펌프 시장의 약 50%를 차지하는 유럽을 비롯한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들은 탄소 중립을 위해 히트펌프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정부가 ‘2050 탄소 중립’ 목표에 따라 이달 히트펌프 보급 사업을 발표했으며 2035년까지 350만대 대상으로 지원 대상 확대할 예정이다.

향후 시장 공략 방향도 제시했다. 송 그룹장은 “올해는 한국 시장에서 점유율 보다는 소비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전달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기아, 6월부터 멕시코 공장 EV3 생산

연간 약 11만대 생산 전망

기아가 오는 6월부터 멕시코 몬테레이 공장에서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V3 생산을 본격화하며 글로벌 전기차 영토 확장에 나선다. 이번 결정은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 환경에 대응하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29일 완성차 업체에 따르면 기아는 멕시코 몬테레이 공장에서 6월 말부터 소형 전기 SUV EV3의 생산에 돌입한다. 기존 기아 오토랜드 광명에서 생산하고 있는 EV3 물량은 유지할 방침이다.

기아는 멕시코 공장에서 현재 K3와 K4, 현대차 투싼 등 내연기관 차량만 생산하고 있다. 이번에 EV3를 생산하면 처음으로 전기차를 생산하게 된다.

기아는 이번 생산을 통해 관세 장벽과 보조금 혜택 ‘두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전략이다.

멕시코 생산의 가장 큰 목적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이다. 멕시코는 미국·캐나다와 체결한 북미자유무역협정(USMCA) 체결로 현지 생산 시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최근 강화된 미국 정부의 고율 관세(15~25%) 부담을 피할 수 있어 북미 시장 내 가격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또 원가 절감과 물류 효율 극대화도 기대할 수 있다. 멕시코는 인건비 등 생산 비용이 저렴하다는 점에서 보급형 전기차인 EV3의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

현재 한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기아 오토랜드 광명에서 전량 생산 중인 EV3 물량을 멕시코와 분담함으로써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게 된다. 멕시코 공장은 연간 약 11만 대의 EV3 생산 역량을 갖출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북미는 물론 중남미 시장까지 공략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이 외에도 올 하반기에는 K4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 생산 라인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ysw@

KG모빌리티, 무쏘 등 글로벌 수출 박차

제품 라인업 확대·현지 마케팅 강화

KG 모빌리티(이하 KGM)가 튀르키예에 시장 공략 강화를 위해 제품 라인업 확대와 체험 행사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한다.

KGM은 최대수출국인 튀르키예에서 해외 딜러와 기자단을 초청해 무쏘 첫 글로벌 론칭 행사를 갖고 수출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8일과 29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카파도키아 메리어트 호텔에서 진행된 행사에는 KGM 광재선 회장과 광정현 사장을 비롯해 튀르키예와 유럽, 중남미, 아시아, 중동 등 31개국 딜러 및 기자, 인플루

언서 170여 명이 참석했다. 광재선 KGM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론칭을 시작으로 개별 국가별 무쏘 출시 확대는 물론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과 현지 딜러와의 소통 및 협력 강화를 통해 판매 물량을 더욱 늘려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GM은 지난 2월 독일에서 대규모 딜러 콘퍼런스를 가진 데 이어 이달 초에는 액티언 하이브리드를 론칭하며 시승 행사를 가졌으며, 지난 달에는 본격적인 베트남 시장 진출을 앞두고 광재선 회장이 KD파트너사인 FUTA(푸타) 그룹의 Kim Long Motors(김롱모터)와 간담회를 갖는 등 글로벌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한화에어로, 항공무장 국산화 기술 공개

‘한화 테크 아카데미 2026’ 개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항공무장과 탄약 기술 국산화를 통해 자주국방 역량 강화와 K방산 수출 확대에 나선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서울 중구 한화빌딩에서 ‘한화 테크 아카데미 2026’을 열고 항공무장 국산화를 위한 핵심 기술을 공개했다고 29일 밝혔다.

‘한화 테크 아카데미 2026’에서는 덕

티드 램제트 추진기관 기술을 중심으로 항공무장 개발 방향이 소개됐다. 덕티드 램제트 추진기관은 비행 중 흡입한 공기로 고체연료를 태워 추진력을 얻는 미사일 추진기관이다. 별도 산화제 탑재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사정거리 확대와 급가속, 고속 유지에 유리한 기술로 평가된다.

K9 자주포에 사용되는 155mm 포탄의 명중률을 높이는 첨단 탄약 기술도 소개

됐다. 정밀유도포탄은 GPS(위성항법장치)와 INS(관성항법장치)가 결합된 통합항법장치, 유도제어장치, 꼬리날개 등을 탑재해 적 핵심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지능형 포탄이다.

포탄 비행 중 제적을 수정해 명중률을 높이는 탄도수정신관 기술도 공개됐다. 사정거리가 길어질수록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를 보완할 수 있고 기존 탄약의 신관을 탄도수정신관으로 교체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 활용도가 높다.

/원관희 기자 wkh@

“넓은 규제에 신산업·창업·투자 막혀”… 합리화 30선 건의

중소기업, 민간 추진단에 과제 전달
완화·명확화·강화 과제 등 포함
노후산업 업종확대·샌드박스 개선
여성CEO 지원·벤처투자 규제 완화
금 “수요자 관점서 적극적 검토”

중소기업계가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30선’을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에 전달했다.

여기에는 ▲노후산업 활성화를 위한 입주업종 확대 방안 마련 ▲신산업 진입 활성화 위한 규제샌드박스 개선 ▲여성 CEO의 출산육아기간을 창업지원기간(7년)에 불포함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에 대한 RWA 규제 완화 ▲의료기기 품목 정의 개정을 통한 수출 규제 애로 해소 ▲노란우산 해지일시금 건장보험료 이중부과 제외 ▲건설근로자 현장보행 및 작업시 휴대전화 사용금지 규정 마련 등의 내용이 두루 포함돼 있다.

29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규제합리화 30선’에는 완화 과제 21개, 명확화 과제 5개, 강화 과제 4개가 포함돼 있다.

오래된 산업단지는 10~20년전 수립했던 업종계획을 여전히 똑같이 적용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고 있어 신산업 수요와 업종 간 융복합화 트렌드, 지역 전략산업 변화 등의 반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입주업종 변경에 대한 산업통상부의 정기적 검토 및 가이드라인 마련 의무화 ▲시·도지사가 입주업종 변경 또는 업종특례구역으로의 변경 신청을 반려하는 경우 반려 사유 소명 의무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현재 창업·도약·재도전 지원사업 및 정책자금과 투자는 ‘창업 7년 미만’에 집중돼 있다. 이때문에 20~30대 창업 여성기업 대표의 경우 결혼·임신·출산·육아 시기와 창업 3~7년 시기가 겹치는 상

황이 발생해 강제적으로 경력단절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창업 7년 미만 기준을 혼인·출산·육아 시 연장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시중 은행들은 비상장주식 투자에 대한 위험가중자산(RWA) 산정 시 ‘위험가중치 400%’를 적용하고 있다. 위험가중자산이 크면 BIS 비율 등을 유지하는데 부담으로 커 벤처펀드 출자도 기피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미국 등 해외 선진 금융시장의 기준을 벤치마킹해 은행이 벤처펀드에 출자시 적용하는 위험가중치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건

의했다.

건설업계는 규제강화 분야에서 작업자의 현장 보행 및 작업 시 휴대전화 사용금지 규정을 도입해달라고 요청했다. 운전자나 철도관제중사처럼 현장 안전 강화를 위해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새롭게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이 설치된 만큼 현장 수요자 관점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동시에 건의 처리결과에 대한 소통도 원활히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한국엔컴퍼니그룹 ‘모델솔루션’
아트센터 협업성과 공개
제품급 프로토타입 완성

한국엔컴퍼니그룹의 계열사 모델솔루션이 산학협력을 통해 차세대 제품 디자인 구현 역량을 선보였다.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실제 제품 수준의 프로토타입으로 완성하며 초기 콘셉트를 설계·엔지니어링·제조 단계로 연결하는 통합 솔루션 역량을 구체화했다.

모델솔루션은 미국 아트센터 칼리지 오브 디자인(ArtCenter College of Design)과 진행한 산학협력 프로젝트 성과를 공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아트센터 제품디자인과의 올해 봄 학기 정규 수업 ‘3D 모델링 3’ 과정과 연계해 진행됐다. 아트센터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패서디나에 위치한 디자인 전문 교육기관으로, 산업디자인과 제품디자인, 모델리터디자인 분야에서 명성을 쌓아왔다.

프로젝트는 학생들의 창의적인 디자인 아이디어를 실제 제품에 가까운 하이피델리티 프로토타입으로 구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모델솔루션은 CAD 기반 설계 검토, CMF 구현, DFM 기반 제조 검토 등을 지원하며 디자인 콘셉트가 제품화 단계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협업했다.

최종 결과물로는 휴대용 DJ 컨트롤러 ‘DJ Deck’, 자율주행 기반 미래형 쇼핑 카트 ‘Grocery Cart’, 라스트마일 딜리버리 전기자전거 ‘E-Bike’가 선정됐다. /원관희 기자 wkh@

K-뷰티가 밀었다… 中 中企 수출 298억달러 ‘역대 최대’

중기부, ‘1분기 중기 수출 동향’
전년비 9.1% 늘어 최고 실적
화장품 21.8억달러 수출 신기록
온라인 수출도 첫 3억달러 돌파

중소기업 수출이 중동 전쟁 등 불확실한 글로벌 환경에서도 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K-뷰티’를 대표하는 화장품이 두 자릿수 이상 늘어 전체 수출을 이끌었다. 미국은 8분기 연속으로 화장품 최대 수출국 자리를 지키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도 1분기 중소기업 수출 동향’을 29일 발표했다.

올해 1분기 중소기업 수출액은 29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1% 늘어나며 잠정치 기준으로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달 1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모습. /뉴시스

중동 전쟁 여파는 수출에 악영향을 줬다. 3월만 놓고보면 중동 전쟁 발발로 중동 수출액이 2억8900만 달러로 전년 동월에 비해 무려 49.5%나 빠졌다. 그러나 같은 기간 아시아가 20.7% 늘어난 66억6000만 달러, 미국 등 북미가 4.5% 증가한 18억6000만 달러 등을 기록하며 중동 수출 하락을 상쇄했다.

온라인 수출도 미국, 중국, 영국 등으로의 수출 증가에 힘입어 분기 기준 최초로 3억 달러를 넘어섰다. 온라인 수출 기업 숫자도 2193개(2024년 1분기)→2390개(2025년 1분기)→2735개(2026년 1분기)로 점점 늘고 있다.

중소기업 수출은 화장품이 주도했다. 21억8000만 달러로 무려 21.3% 증가하며 역대 분기 최고 수출 실적을 거뒀다. 직전 최고치는 지난해 3분기(21억 7000만 달러)였다.

화장품 권역별 수출액은 아시아 10억 4000만 달러, 유럽 5억 달러, 북미 4억 6000만 달러, 중동 8000만 달러 등이었다.

중기부 관계자는 “미국은 K-뷰티 현지화 마케팅 효과로 온라인 플랫폼 내 수요 증가, 북미 유통망 확대에 따라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며 8분기 연속으로 화장품이 가장 많이 수출되는 나라”라

며 “유럽도 브랜드사의 현지 법인 설립, 자사몰 강화 등 온·오프라인 채널 확대에 따라 두 자릿 수 이상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화장품 수출 기업수 역시 6276개사로 전년(5740개)보다 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온라인을 통한 화장품 수출도 전년 동기 대비 74.2% 증가한 2억 달러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다시 썼다. 영국(282%), 중국(91%), 미국(60.8%) 등에서 수출이 크게 늘었다.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보다 55.6% 늘어난 11억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5세대 이동통신(5G), 인공지능(AI) 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고성능 통신장비, 클라우드 서버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의 수출이 홍콩(214.8%), 베트남(35.4%), 대만(82.5%) 등으로 크게 늘어난 결과다. /김승호 기자

中企 중동전쟁·AX 애로 해소 나선다

‘찾아가서, 해결하는 중진공’ 간담회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전환(AI) 추가 지원 모색에 나섰다. 중진공은 강 이사장이 29일 오후 충남 천안시에 있는 케이엠에프 사업장에서 ‘찾아가서, 해결하는 중진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의 중동전쟁 위기 대응과 AI 대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강 이사장 외에도 이정구(사)충남 강하게 공부하는 기업인협회 회장을 비롯해 협회 회

원사 등 8개사가 참석했다.

충남 강하게 공부하는 기업인협회는 수출 중소기업이 다수 참여한 협의체로, 최근 급변하는 환경과 위기 대응을 위해 천안·아산 지역을 중심으로 최고경영자(CEO) 연수 등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AI에 대한 부담을 동시에 겪고 있는 기업들도 많아 정부 지원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이다.

이날 참석 기업들은 중동 수출 관련 애로사항 등 기업 현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승호 기자

제3자 부당개입 신고 첫 포상금 지급

소진공, 신고 3건 수사의뢰

중소벤처기업부가 정책자금 브로커 색출 등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산하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3건을 수사 의뢰하고 신고포상금을 처음 지급했다. 소진공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중 3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총 1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

소진공에 따르면 특정 기간 내 정책자금 대출을 보장하거나 승인 가능성을 확정적으로 안내하면서 착수금·계약금 등

선지급 비용을 요구한 정황과 공단지라고 속이면서 위조 문서를 발송한 점이 확인됐다.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토대로 접수된 신고에 대해 소진공은 사실관계 확인 및 위법성 검토를 거쳤고 수사 의뢰로 이어졌다. 신고 내용의 신빙성과 적발 기여도가 인정돼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이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태스크포스(TF)’ 참여 공공기관 중 신고포상제 운영으로 실제 지급까지 이뤄진 첫 사례다. /김승호 기자

공영홈쇼핑

TV홈쇼핑 입점기회 제공
온라인 판매 채널도 확대

정부 판로지원 수행기관 선정

공영홈쇼핑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주관하는 ‘2026년 TV홈쇼핑 및 데이터홈쇼핑 입점지원 사업’과 ‘2026년 온라인판로 종합지원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29일 공영홈쇼핑에 따르면 올해 TV홈쇼핑 및 데이터홈쇼핑 입점지원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35개사의 판로를 지원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TV홈쇼핑 생방송 1회와 재방송 1회의 기회가 주어진다. 우수한 실적을 거둔 제품은 스테디셀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병행할 예정이다.

공영홈쇼핑은 지난해 해당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55개사의 상품을 방송하고 43억원의 판로지원액을 기록했다.

온라인판로 종합지원 사업에서는 중소기업 10개사의 판로를 지원한다. 한정된 인력과 재고부담 등으로 TV홈쇼핑 진출이 어려운 기업을 위해 생방송 2회를 지원한다. 이 밖에도 기획전 노출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판매 촉진을 도울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AI·데이터·연계플랫폼 초월기업

Leading AX Platform

온프레미스 & 클라우드 하이브리드형 시장 점유율 1등 기업



과장광고·환불불가... 해외 생성형 AI, 소비자 보호 공백 우려

광고영상에 주요 대학교 로고 노출
서울대 “공식적으로 계약 사실 없어”
연간 10만원 구독 유도하고 CS 전무
해외 관할 조항 탓 법적 구제 어려워
AI 이용률 44.5%... 보호장치 필요

유료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일부 해외 생성형 AI 사업자가 국내 주요 대학 이름을 내걸고 홍보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호한 환불 규정과 해외 관할 조항까지 두고 있어 국내 소비자 보호 공백이 우려된다.

29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생성형 AI 모델 광고가 유튜브·릴스 등 온라인 채널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광고 영상은 ‘99%가 모르는 대학시험 올 A+ 받는법’, ‘논문 비평 3초 만에 해결하는 법’ 등 자극적인 문구로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된다.

문제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국내의 주요 대학의 브랜드 영향력을 활



일부 해외 생성형 AI가 국내의 주요 대학교를 광고 배너로 사용하고 있다. /해당 업체 홈페이지 캡처

용해 구독을 유도한다는 점이다. 게시물에 링크된 주소로 접속하면 국내의 유명 대학교의 로고가 첫 화면에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소비자들이 주요 대학에서 해당 서비스를 공식적으로 도입했거나 제휴한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 이를 보고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대학에서 사용했으니 안심해도 된다’는 판단을 하고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대학교 측은 해당 생성형 AI 사업자와의 계약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학) 정보화본부에서 공식적으로 계약한 사실이 없다”며 “상표가 워낙 광범위하게 사용돼 일일이 찾아내기 어렵다. 학과장 명의의 개별 계약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정보화본부는 서울대학교의 학내 디지털 인프라와 소프트웨어 도입 등을 총괄하는 조직이다.

환불 기준이 모호한 점도 문제다. 실

제로, 구독 즉시 환불을 요청한 적이 있는 박 씨는 운영자에게 메일을 보낸 4시간 후에야 원칙적으로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박 씨는 “CS(소비자서비스) 채널도 없고 이메일을 통해서만 소통하는 것도 불편한데 월 구독 옵션이 없어서 1년 치를 냈는데도 환불이 안된다니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연간 구독료는 연간 10만원이 넘는다.

오픈AI가 공급하는 ‘챗GPT’의 경우 유럽, 아시아 등 지역별로 약관을 분리하거나 별도의 분쟁 해결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국내 대응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들이 권의 침해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 일부 생성형 AI는 관할을 해외로 두는 조항이 있다는 점도 이를 방증한다.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2023년 글로벌 생성형 AI 중 일부는 시스템 오류로 이용자 정보가 노출되거나, 사용자가 입력한 기업 기밀이 외부 서버로 전송된 사례가 있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기업의 A

I 리스크 관리를 위한 실무 가이드를 발표한 것도 개인정보 유출과 기밀 정보 오남용 우려가 커진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생성형 AI 공급은 늘고 있지만 책임과 보호 장치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3월 발표한 ‘2025 인터넷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생성형 AI 서비스 경험률은 올해 44.5%로 지난해(33.3%) 보다 11.2%p 상승했다. 최소한의 소비자 보호 장치를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내 한 대형 법무법인의 테크·AI 분야 전문 변호사는 “올해 처음 시행한 인공지능 기본법은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경우 적용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지만, 상표권이나 관할 문제는 개별 법률로 검토해야 한다”며 “타인의 상표를 활용해 소비자 혼동을 유발했다면 상표법 위반 소지가 있고, 해외 법인의 경우 민사적 대응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민선 기자



msjo@metroseoul.co.kr

metro

KT, 예방 중심 관리체제로 고객신뢰 강화

‘고객보호365’ 태스크포스 발족
피해 가능성 사전 인지해 대응
원스톱 해결센터·고객 경청포럼 운영

KT가 고객 신뢰 강화를 위해 사후 대응에서 예방 중심으로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KT는 ‘고객보호365’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TF는 전사적으로 고객 가치 보호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신설됐다. 주요 실행 과제는 ▲AI 기반 실시간 탐지 ▲원스톱 해결센터 ▲찾아가는 고객 경청포럼 운영 등이다.

먼저 모든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접수되는 고객문의(VOC)를 즉시 분석하고 불편 요소와 잠재 리스크를 파악한다. 고객의 피해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해 서비스 개선과 보호 조치로 연결되는 선제 대응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보이스 피싱 탐지와 문맥 분석 기반의 AI 스캠 차단 서비스, 안전·안심 서비



지난 28일 KT 용대 에드샵 플러스에서 열린 제1회 고객경청포럼 현장에서 대학생 마케터 및 관계자들이 기념촬영 하고있다. /KT

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원스톱 해결센터는 고객 피해를 하나의 창구에서 통합 관리하고, 24시간 내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AI 기반의 VOC 분석과 전사 협업을 통해 상담사 개인 역량에 의존하던 방식을 개선한다.

고객경청포럼 운영도 지속한다. 경영진이 매달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의견을 듣는 소통 프로그램이다. 지난달 KT 용대 에드샵 플러스에서 개최한 대학생 마케터 ‘Y튜처리스트’를

통해 청년 고객과 통신 서비스 이용 시 느끼는 고충을 논의하기도 했다. 향후 대상 연령층을 시니어 고객과 소상공인 등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KT의 박현진 커스터머부부장(부사장)은 “단순 대응 차원의 고객 보호를 넘어 AX역량을 기반으로 고객 신뢰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고객의 일상과 자산을 보호하는 안전한 통신·디지털 플랫폼 기업으로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선 기자

SKT, 美 NBA쇼 올해의 제품상 수상

AI 미디어 커머스 ‘라이브 투 카트’

SK텔레콤은 ‘NBA 쇼 2026’에서 ‘라이브 투 카트’가 올해의 제품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NBA 쇼 2026’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방송·미디어·엔터테인먼트 전시회다. 미국 전미방송협회(NBA) 주관으로 매해 4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다.

AI 미디어 커머스 솔루션 ‘라이브 투 카트’는 라이브 방송을 보던 시청자가 별도 검색 없이 화면 속 상품을 즉시 구매할 수 있다. 방송 영상의 시각 정보와 자막을 동시에 이해하는 멀티모달 AI가 상품을 실시간 인식하고, 구매 가능한 상품 정보를 자동으로 연결한다. 이 서비스로 전체 수상작 가운데 한국 기업으로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기존 미디어 커머스는 상품 태깅, 수



김동원, 배주한 SKT 엔터프라이즈설루션개발팀 매니저(오른쪽)가 NBA쇼 2026 올해의 제품상 수상 후 기념촬영 하고있다. /SK텔레콤

동 편집, 별도 큐레이션 등 사람의 개입이 필요한 반면 ‘라이브 투 카트’는 AI가 방송 장면을 실시간 분석해 상품 탐색부터 구매 연결까지 자동화하는 제로 큐레이션 구조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시청자는 상품 탐색 과정 없이 곧바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고, 미디어 사업자는 전통적 광고 수익 외 커머스 기반의 신규 수익 모델을 확보할 수 있다. /조민선 기자

위메이드 ‘미르의 전설2’ 분쟁 종결

위메이드는 중국 킹넷을 상대로 진행해 온 ‘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권(IP)로 열티 미지급 분쟁을 화해계약으로 마무리하고 약 430억원 규모의 화해금을 수령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분쟁은 킹넷 자회사 절강환유가 2016년부터 중국에서 서비스한 ‘남월전기’의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위메이드는 국제중재와 중국 법원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며 원저작권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았고, 배상금 지급 책임 판정을 이끌어냈다. 이후 배상금 회수를 위한 집행 절차를 진행해 왔다.

/최빛나 기자 vitna@

LG U+, 장기고객 ‘화담숲 초청데이’ 성료

‘유평투블’서 전용 혜택 선봬

LG유플러스는 장기 이용 고객 대상의 ‘화담숲 초청데이’를 성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행사는 지난 27일 경기도 광주 화담숲에서 LG유플러스 장기 이용 고객 3000명을 초청한 가운데 진행됐다. 장기 고객 기준은 멤버십 VIP 이상 또는 사용기간 5년 이상이다. 이날 입장 인원을 6개 시간대로 나눠 쾌적한 환경에서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기획하고, 자연 감상과 관람 동선에 따른 불편 요소도 최소화했다.

행사는 연중 상시 운영하는 ‘장기고객 초대 프로그램’ 일환으로, 대표 멤버십 프로그램 ‘유평투블’을 통해 장기 고객을 위한 전용 혜택을 선보이고 있다. 또 단순 할인이나 포인트 제공에서 고객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콘텐츠로 확대하고 있다. 올해 초에는 월별 특별 선물을 제공하고, 인기 뮤지컬이 열리는 극장 전체를 대관해 무료 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등 문화 체험 혜택으로 차별화 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오는 5월에도 레고랜드 ‘레고런’ 행사를 통해 장기고객을 대상으로 한 참여형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민선 기자

국내 첫 산·학·연 AI 민관 협력체 KOSA와 공동의장사 맡아

네이버클라우드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와 공동으로 ‘대한민국 인공지능 연합(K-AI 파트너십)’의 공동의장사를 맡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산·학·연 AI 민관 협력체 ‘K-AI 파트너십’은 글로벌 인공지능(AI) 패권 경쟁 속에서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전환(AX) 역량을 결집하고 대·중소기업 동반 글로벌 진출을 도모하기 위해 출범한 국내 최초의 산·학·연 전방위 AI 민관 협력체다. 기존 학술·진목 중심 단체와 달리 산업 현장 수요를 발굴해 즉각적인 비즈니스

매칭과 수출 성과를 창출하는 실행 중심 협력체를 지향한다.

공동의장은 조준희 KOSA 회장과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가 맡는다. 산업계 전체를 아우르는 협회와 기술 역량을 갖춘 민간 기업이 핵심 리더십을 공동 구성했다.

네이버클라우드-그간 주요 국가 AI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공공과 민간을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번 협력체에서는 비즈니스 모델 설계와 기술 협력을 지원하는 한편, 대기업 인프라와 스타트업 혁신 기술을 결합해 K-AI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참여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는 ‘현장 밀착형 정책 창구’ 역할도 수행한다. /최빛나 기자

오픈AI 쇼크에 기술주 급락... 레버리지 울고 인버스 웃었다

AI 모멘텀 의문 속 변동성 커져
미국발 악재에도 낙폭 제한 영향
KRX 반도체지수 0.38% 하락 그쳐
레버리지 'SOXL'은 11.21% 급락

오픈AI발 성장성 우려가 글로벌 증시의 상승 흐름에 제동을 걸었다. 기술주 중심의 낙폭이 확대되면서 레버리지 상품은 직격탄을 맞은 반면, 인버스 상품에는 자금이 몰리는 등 투자 방향도 빠르게 엇갈리는 모습이다. 다만 국내 반도체 지수는 제한적 조정에 그치며 '오픈AI 쇼크'를 반짝 이슈로 소화하며 버티는 모습을 보였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45분 기준 KRX 반도체 지수는 1만 3033.63으로 보합했고, KRX 반도체 Top15 지수 역시 8836.26으로 0.06% 소폭 올랐다. 간밤 미국발 악재에도 불구하고 낙폭이 제한되며 시장 충격이 일부 완충된 모습이다.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1.80%)·SK하이닉스(-0.54%) 역시 소폭 등·하락하는데 그쳤다.

이는 간밤 미국 증시 변동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에서는 충격이 제한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

실제로 28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25.86포인트(0.05%) 하락한 49141.93에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49%, 나스닥지수는 0.90% 각각 내렸다. 전날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주요 지수들이 일제히 숨고르기에 들어간 셈이다.

하락의 중심에는 오픈AI가 있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오픈AI가 신규 사용자와 매출 목표를 충족하지 못했고, 향후 AI 데이터센터 비용 부담에 대한 내부 우려가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성장

기대를 기반으로 이어져 온 AI 투자 서사에 균열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시장 충격이 컸다.

이에 따라 반도체와 AI 인프라 관련 종목들이 동반 약세를 보였다. 엔비디아(-1.59%)를 비롯해 브로드컴(-4.39%), AMD(-3.14%) 등이 일제히 하락했고, 특히 오픈AI 인프라 관련 기업인 오라클(-4.05%)과 코어위브(-5.83%)는 주가 하락을 피하지 못했다.

레버리지와 인버스 간 수익률이 극단적으로 엇갈렸다.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 하락 여파로 3배 레버리지 ETF인 S

OXL은 11.21% 급락한 반면, 같은 지수를 역방향으로 추종하는 SOXS에는 국내 투자자 순매수가 몰리며 단기 수익(+11.21%)을 올리는 흐름이 나타났다. 이른바 '레버리지 울고 인버스 웃는' 장세가 연출된 셈이다.

실제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날 들어 국내 투자자들은 SOXS를 약 1억 2145만달러 이상 순매수하며 하락 베팅을 확대했다. 상승 피로가 누적된 상황에서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는 흐름으로 풀이된다.

다만 AI 투자 열풍을 단순한 거품으로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시각도 공존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비상장 지분 투자 과열, 테마주 급등 등 닷컴버블과 유사한 징후를 지적하면서도 "버블 여부는 결국 사후에만 확인된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AI가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은 과거 어떤 기술보다 클 수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 성장론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분석이다.

시장의 시선은 다시 실적으로 향하고 있다.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가 29일, 애플이 30일 실적을 발표하는 가운데 AI 투자 수익성에 대한 설명 여부가 향후 증시 방향을 좌우

할 핵심 변수로 꼽힌다. 국내 증시는 상대적으로 제한된 조정을 보이며 버티는 모습이다. 29일 오후 2시 45분 기준 KRX 반도체 지수는 약 12983선으로 0.38% 하락에 그쳤고, KRX 반도체 Top15 지수도 8803선으로 0.31% 내리는 데 머물렀다. 간밤 미국발 악재에도 불구하고 낙폭이 제한된 셈이다.

증권가에서는 단기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경계하면서도 하락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코스피200 야간선물이 1%대 하락 마감한 점을 감안하면 장 초반 조정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시계외의 가이던스 상황에 따른 반도체주 시간외 반등과 일부 실적 서프라이즈가 하락 경직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스피가 이달 들어 30% 이상 급등한 만큼 차익실현 욕구가 커진 구간"이라며 "오픈AI발 불확실성과 FOMC, 빅테크 실적 이벤트가 단기 조정의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허정윤 기자
zolkova@metroseoul.co.kr



metro

회사채 잔액 감소... CP·단기사채 발행 급증

금감원, 지난달 기업 금융 조달실적
1월부터 석 달째 순상한 기조 지속

지난달 일반회사채 발행 실적은 감소한 반면 단기사채 조달 수단인 기업어음(CP)과 단기사채 발행 규모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3월 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에 따르면 회사채 발행실적은 19조5430억원으로 전월(18조9082억원) 대비 3.4%(6348억원) 증가했다.

다만 지난달 말 기준 전체 회사채 잔액은 747조3152억원으로 전월(748조4481억원)보다 0.2% 감소했다.

일반회사채는 지난달 말 기준 4490억원이 순상환됐고, 발행 실적은 4조7810



금융감독원 전경. /메트로DB

억원으로 전월(5조1137억원)보다 6.5% 감소했다.

올해 1월부터 석 달째 발행보다 상환이 많은 순상환 기조가 지속된 것이다.

반면, CP 발행금액은 46조7698억원으로 전월(37조8559억원)보다 23.5% 증가했다.

단기사채는 전월(121조7163억원)보다 26.3% 증가한 153조7040억원 규모

로 발행됐다. 일각에선 중동 사태와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발행시장 위축세가 계속되고 불확실성을 우려한 발행사가 장기 회사채보다는 단기사채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금융채는 13조4424억원으로 전월 대비 0.6% 증가했고, 자산유동화증권(ABS)은 1조3196억원으로 208.7% 증가했다.

지난달 주식 발행 금액은 4402억원으로 전월(3415억원) 대비 28.9% 증가했다.

기업공개 실적은 2104억원(9건)으로 전월 2908억원(3건) 대비 건수는 6건 증가하고 금액은 27.6% 감소했다.

유상증자는 2298억원으로 전월 대비 353.3% 증가했다. /허정윤 기자

제이알리츠에 물린 ETF 편입액 372억

관리종목 지정돼 매매 정지 예정

부동산 투자회사 제이알글로벌리츠가 기업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한 가운데 국내에 상장된 9개 상장지수펀드(ETF)가 이 리츠를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까지 매매가 정지될 예정이어서 이들 ETF의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제이알글로벌리츠를 편입하고 있는 국내 상장 ETF는 모두 9개로, 편입 금액은 약 372억 원에 달했다.

가장 큰 비중을 담고 있는 ETF는 'PLUS 코리아'로 3.67%였다. PLUS 코리아의 시가총액이 100억원이 안되는 점을 고려하면 편입 금액은 약 4억원 수준이다.

편입 금액이 가장 큰 ETF는 'TIGER

R 리츠부동산인프라'로 239억원으로 집계됐다. TIGER 리츠부동산인프라는 제이알글로벌리츠 편입 비중이 1.36%로, 이 ETF의 시총이 1조7513억원에 달해 편입 금액도 컸다.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 ETF의 편입 비중은 2.19%, 편입 금액은 128억원에 달했다.

'HK S&P 코리아로우볼'도 1% 제이알글로벌리츠를 담았고, 'TIGER 리츠 부동산인프라채권 KIS'도 비중이 0.97%였다.

이밖에 KODEX 최소변동성 ETF에서 비중은 0.13%, KODEX 코스피TR과 TIGER 코스피, 'DAISHIN 오피스 리츠플러스'에서 이 리츠의 비중은 각각 0.004%였다.

이들 ETF는 운용사의 운용 역량이 발휘되는 액티브 ETF가 아닌 기초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상품이어서 제이알글로벌리츠를 편입했다. /신하은 기자

두나무, 기와체인 기반 금융 인프라 협력

하나금융-포스코인터와 업무협약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하나금융그룹, 포스코인터내셔널과 금융·디지털 자산·산업간 융합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에서 이뤄진 협약식에는 오경석 두나무 대표, 이은형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장을 비롯한 각사의 주요 경영진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두나무가 개발한 레이어2 블록체인의 '기와(GIWA)체인'을 하나금융그룹의 외국환 네트워크와 포스코인터내셔널의 글로벌 공급망과

연결해, 실제 자금 흐름에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3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기와체인 기반 실시간 해외송금 서비스 구축 ▲글로벌 자금관리 및 지급결제 효율화 위한 금융 인프라 구축 ▲디지털 금융사업 기회 발굴 등 디지털 금융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협력한다.

우선, 기존에 활용했던 국제금융통신망(SWIFT) 방식을 기와체인상의 블록체인 메시지로 전환해 나가는 기술 검증을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포스코인터내셔널의 방대한 글로벌 무역 데이터를 기와체인 위에 안전하게 구현해, 기업 간 거래(B2B)에서 발생하는 대규

모 자금 정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글로벌 자금 업무 효율화를 추진한다.

오 대표는 "기와체인의 기술력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온체인 금융환경을 구현하는 토대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이번 협약은 디지털자산과 전통 산업, 금융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서비스 상용화를 통해 산업 생태계 참여자 모두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사장은 "디지털 금융과 디지털자산 분야에서 국내 대표 기업들과 중장기적 파트너십 기반을 구축했다"며 "3사가 협력을 통해 디지털 금융 생태계에서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미성년자 주식계좌 급증... 1분기 272% ↑

신한투자, 미성년고객 계좌 분석

미성년자 주식투자가 모바일 비대면 계좌를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자녀 계좌가 장기 자산관리와 분산 투자 교육의 출발점으로 활용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1~3월 미성년자 고객 계좌 개설 현황과 국내외 주식 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1분기 미성년자 계좌 개설 수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72% 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

정확한 계좌 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 기간 미성년자 계좌 중 비대면으로 개설된 계좌 비중은 58.4%로 집계됐다. 미성년자 계좌의 계좌당 평균 잔고는 약 1000만원이었다.

이는 단순한 투자 체험을 넘어 자녀 명의 계좌가 중·장기 자산 관리와 금융 교육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신한투자증권 측은 설명했다.

국내 주식 중 미성년자 고객이 가장 많이 거래한 종목은 삼성전자였다.

/신하은 기자

의료기기 비임상시험 서비스 재개

KTL, 해외인증 리스크 ‘최소화’

아산 바이오의료융합지원센터 거점 유럽 등 글로벌 규제 대응 체계 구축 MDR 대응 전략·위험관리 등 공유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KTL)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 비임상시험 실시기관(GLP) 변경지정을 완료하고, 국내 바이오·의료기기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시험·평가 지원 체계를 본격화한다.

KTL은 이번 변경지정을 통해 충남 아산시 R&D 집적지구 내에 위치한 ‘바이오의료융합지원센터’를 거점으로 의료기기 비임상시험 서비스를 재개한다고 28일 밝혔다.

GLP(Good Laboratory Practice)는 비임상시험 데이터의 무결성과 신뢰성을 보증하는 국제 기준으로, 의약품 및 의료기기 인허가에 필수적인 제도다.

앞서 KTL은 2018년 강원도 원주에서 비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첫 지정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의료기기 유효성 및 바이오 안전성 평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아산에 연면적 6553.76㎡ 규모의 바이오의료융합지원센터를 개소했으며, 이번 정기점검 및



의료기기 안전성 및 성능 검증을 위한 화학적 특성화 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KTL

변경지정 과정을 거쳐 인프라 구축을 마무리했다.

KTL은 해당 센터를 통해 의료기기 안전성 및 성능 검증에 필수적인 ▲화학적 특성화 ▲독성학적 평가 ▲생물학적 안전성평가보고서(BER) 작성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CT와 MRI를 활용한 중·대 동물 유효성 시험 등 전문적인 통합 시험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규제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유럽 의료기기 규제(MDR) 등 해외 인증 기준이 강화됨에 따

라, 국내 기업들이 사전에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KTL은 지난 15일 ‘해외인증 기술 세미나’를 개최하고 의료기기 미생물·이화학 시험, 유럽 MDR 대응 전략,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GLP), 위험관리 실무 사례 등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핵심 정보를 업계와 공유하기도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남부발전, 독보적 사이버 방어 역량 입증

NATO 주관 ‘락드실즈 2026’ 참가

한국남부발전이 세계 최대 규모의 사이버 공격 방어훈련에 참여해 에너지 공기업으로서의 독보적인 보안 역량을 전 세계에 알렸다.

남부발전은 지난 4월 20일~24일까지 진행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주관 국제 사이버 공격 방어훈련 ‘락드실즈(Locked Shields) 2026’에 대한민국 대표팀의 일원으로 참가해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했다고 29일 밝혔다.

‘락드실즈’는 NATO 산하 사이버방위센터(CCCOE)가 2010년부터 매년 에스토니아 탈린에서 개최하는 세계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이버 방어 훈련이다. 가상의 NATO 회원국이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받는 극한 상황을 가정해, 실시간 방어 및 위기 대응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올해 훈련은 NATO 회원국과 초청국 등 40개국에서 4000여 명의 전문가가 참여해 사상 최대 규모로 치러졌다. 한국은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경찰청, 국방부 등 민·관·군·공 47개 기관 소속 보안 전문가 170여 명이 참가했다.

남부발전은 정보보안실 소속 전문가



김경민 남부발전 AX본부장(오른쪽)과 한진규 남부발전 정보보안실장(왼쪽)이 ‘락드실즈 2026’ 한국·헝가리 연합 블루팀(방어팀)으로 참가한 정보보안실 소속 직원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남부발전

1명을 ‘대한민국·헝가리 연합 블루팀(방어팀)’에 배치했다. 해당 인력은 특히 국가 중요 시설인 전력 기반 시설을 노린 정밀한 사이버 공격에 맞서 ▲실시간 침해 탐지 ▲신속한 초동 대응 ▲공격 원인 규명 등 실전형 방어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며 전력망 보안 관리 능력을 검증받았다.

김경민 남부발전 AX본부장은 “이번 훈련은 기관의 사이버 대응 역량을 국제 무대에서 입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사이버 침해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에너지 분야의 보안 수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K-전통주 알린다... 외교공관에 36종 홍보

농식품부, 외교부와 ‘K-sool’ 행사 주한 공관 가족 초청해 시음·설명

정부가 주한 대사관·총영사관 등 공관을 대상으로 전통주 홍보에 나섰다. 전통주 36종을 ‘K-푸드 수출거점’ 공관에 전달한 데 이어, 공관 가족을 초청해 시음 행사를 가졌다. 향후 우리 술의 국적항공기 기내 판매와 공항면세점 입점 등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외교부와 함께 서울 중구 ‘한국의집’ (국가유산진흥원 운영)에 외교단 배우자를 초빙해, 한국 전통주 및 한식 홍보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한 미국, 중국, 몽골, 독일, 태국 공관 등에서 참석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전국 각지의 정성과 철학이 담긴 전통주 36종을 전문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한다. 또 이들 상품을 K-푸드 수출거점 공관에도 전달했다. 이 같은 세계화 정책의 일환으로 이번 행사가 기획됐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우리 술 지원정책 마련을 위해 지난해 2월 충북 청주 소재의 한 전통주 제조업체를 찾았다. /농식품부

행사에서는 쌀을 비롯한 한국 농산물(임산물 대추·감 포함)을 기반으로 생산된 전통주 36종 전시, 참여자에게 전통주 특성 및 유래 설명과 함께 시음이 진행됐다.

농식품부는 K-sool의 해외홍보

지원을 위해 전통주를 막걸리, 약·청주, 과실주, 증류주 등 4가지 종류로 크게 분류했다. 아울러 주종별 영문 명칭을 정립하는 등 브랜딩을 추진하고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하루 1시간 소등으로 에너지 절감”

중부발전, 절약 캠페인 동참

한국중부발전은 29일 중동 사태에 따른 에너지 안보 위기에 대응해 사옥 내 조명 에너지 절감 등 에너지 이용 합리화 조치를 시행하며 에너지절약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한국에너지공단을 시

작으로 주요 공공기관들이 각자의 실천 과제를 이어가는 것으로, 중부발전은 에너지 생산의 최전선에 있는 공기업으로서 선제적으로 에너지 소비를 줄여 민간 참여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중부발전은 본사 및 전국 사업소를 대상으로 발전설비 운전 관리 최적화

와 소내 전력 절감, 공공 2부제 참여 등 구체적인 운영 체계를 확립해 시행 중이다.

특히 임직원들의 생활 속 실천을 위해 점심시간(12시)과 퇴근시간(19시)에 맞춰 사무실 조명을 일괄 자동 소등하고 있다. 12시 소등은 낮 시간대 자연 채광 활용을 극대화하며, 19시 소등은 불필요한 야근을 줄이는 동시에 심야시간대 낭비되는 전력을 원천 차단하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한국환경공단 “국민 체감 혁신 실현”

K-eco 시민참여혁신단 발대식

한국환경공단이 ‘제4기 K-eco 시민참여혁신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9일 공단에 따르면 지난 27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성과 창출을 목표로 내걸고,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 MCE타워에서 발대식을 가졌다. 경영 전반에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혁신단은 ▲혁신·적극행정 및 ESG(환경·사회·투명) 경영 관련 아이디어 제안 ▲정책 및 사업 추진과정 모니터링 ▲국민 관점의 평가 및 의견 제시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공단은 지난 2022년부터 ‘K-eco 시민참여혁신단’을 운영해 왔다. 올해는 운영 규모와 방식 전반을 개편하는 등 국민참여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이 ‘제4기 K-eco 시민참여혁신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올해 제4기의 경우, AI(인공지능) 활용과 디지털혁신 부문 참여 인원을 50명에서 67명으로 확대했다. 국민의 견 반영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상생·협력하는 공동체 모델 개발에도 힘을 기울인다.

차광명 한국환경공단 경영기획이사는 “시민참여혁신단을 통해 국민이 참여하는 혁신을 구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해진공, 선사에 무담보 신용보증 시행

선사당 최대 25억 지원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무담보 신용보증 신설 등 유동성 지원 패키지를 시행한다.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국내 해운기업이 처한 경영 어려움 완화가 목적이다.

29일 해진공에 따르면 전쟁 발발 이후 대한민국 국적의 선박 26척이 호르무즈 해협 내에 통항이 막힌 채 대기 중이다.

이들 선박은 보험료 할증, 유류비 및 선원 위험 수당 인상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운임 상승으로 일부 화주가 선적을 포기하는 등 영업 환경

도 악화하면서 선사들의 유동성 경색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해진공은 해양수산부와 함께 중동 사태로 피해를 입은 선사를 대상으로 무담보 신용보증을 새롭게 지원한다.

이는 긴급한 경제적·사회적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해수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신규로 시행되는 것이다. 지원 한도는 선사당 최대 25억 원이며 보증 기간은 1년 이내의 단기대출이 대상이다.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지원방식을 개선해 지원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 3주까지 단축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대한홍삼(주)

건강창업의 모든 것!

BH Since 1996 **대한홍삼 건강백화점**

공식 파트너 모집

“대한민국 건강을 지켜온 30년의 노하우,
이제 당신의 성공비즈니스가 됩니다.”

대한홍삼 건강백화점이란?

건강에 대한 모든 해답을 한 곳에!

대한홍삼 건강백화점은 인기 있고, 가성비 좋은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제품을 한자리에 모아 고객이 직접 체험하고,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결합 매장입니다.

• 취급품목

다양한 브랜드 홍삼 / 다양한 브랜드 건강식품 / 다양한 브랜드 건강기기 / 다양한 브랜드 건강의류
다양한 브랜드 건강용품 / 의료기기 등

• 판매방법

매장 / 웹카탈로그(도·소매) / 복지쇼핑몰(회원판매) / 체험방 / 특판 / 방판

차별화된 경쟁력

- ✓ 무자본부터 대형 매장까지
- ✓ 인기 있고 이윤 높은 건강상품을 지속적으로 공급
- ✓ 자사 TV방송국(브레인TV)을 통해 많은 시간 지속적으로 광고하고 제품 판매를 지원하는 건강강좌 프로그램 제공
- ✓ 웹카탈로그 시스템 지원 (홍보, 신규영업, 매장상품 관리)
- ✓ 복지몰 시스템 지원 (신뢰 기반의 고객 관리, 수익률 창출하는 새로운 기회)
- ✓ 30년 전통! 헛터그룹 및 협력사의 지원과 노하우의 집약 무료교육

창업비용

최저 창업비 (MIN. 398만원)로
최대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창업유형

유형 1. 매장 창업(일반매장, 건강체험관, 건강카페, 영업센터)
유형 2. 무점포 창업

BH 대한홍삼 [주] **창업문의 : 1522-7585**

www.koreahongsam.co.kr 본사 : 서울시 금천구 가마산로 96
대륭테크노타운8차 601호



Since 1996
헛터그룹
Haetter Group

(주)헛터
(주)헛터방송_브레인TV
(주)헛터라이프_헛터복지몰
한삼장홍삼(주)
대한홍삼(주)

경남, SMR 원스톱 생산·검증라인 구축 본격화

지역 이모저모

275억 규모 SMR 국책사업 유치
2029년까지 창원국가산업단지 구축
제조·검사·인증 원스톱 체계 마련
첨단 장비 5종 도입해 기업 지원

경남도가 소형 모듈 원전(SMR) 분야 핵심 국책 사업을 유치하며 글로벌 SMR 제조 거점으로의 도약에 속도를 낸다.

경남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 'SMR 제조부품 시험검사지원센터 건립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92억 5000만원을 포함한 총 275억원 규모의 국책사업을 유치했다고 밝혔다.

사업은 한국기계연구원이 주관해 2026년 4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창원 국가 산업단지 확장 2구역에서 추진된다. 경남도·창원시·경남테크노파크·국립창원대학교·서울과학기술대학교·부산대학교·한국건설생활 환경시험연구원·고등기술연구원이 참여 기관



김명주 경남도 경제부지사가 28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SMR제조부품 시험검사 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해 정부 공모 선정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경남도

으로, 두산에너지빌리티가 수요기업으로 함께한다.

이번 사업은 경남도가 2023년 6월 수립한 '경상남도 원전 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출발점으로, 2025년 9월과 12월

'한미 원자력 산업 협력 실행 방안'과 'SMR 글로벌 육성 전략'을 정부에 건의하며 시험검사지원센터 구축을 핵심 과제로 명시한 결과다. 2025년 12월 국비 반영을 거쳐 이번 공모 선정으로 이어졌다.

센터가 들어설 창원 국가산업단지 확장 2구역에는 SMR 로봇활용 제작지원센터가 구축 중이다. 두 시설이 나란히 들어서면 경남에는 SMR 부품 제조부터 시험·검사·인증까지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전국 유일의 원스톱 SMR 생산·검증 라인이 완성된다.

센터에는 5종의 첨단 검사장비도 도입돼 국내 기업들이 공동 활용할 수 있다. ▲두께 200mm 이상 부품 내부를 3D로 투시하는 산업용 대형 CT ▲검사 소요 시간을 10분의 1 이하로 단축하는 협동로봇 디지털 RT 시스템 ▲고온 상태 용접부를 즉시 검사하는 포터블 레이저 UT 시스템 ▲복잡한 구조 부품에도 적용 가능한 자동 스캔 PAUT 시스템

▲검사 결과를 미리 시뮬레이션하는 소프트웨어 등이다.

이들 장비는 SMR·원전 외에도 항공 우주·국방·조선·자동차 등 경남 주력 산업에도 활용 가능하다.

경남은 원전 기업 수·제조 인력·매출액 모두 전국 1위로, 두산에너지빌리티를 중심으로 340여 개 원전 기업이 집적돼 있다. 경남도는 이번 사업을 SMR 특별법과 연계해 SMR 특구 지정을 추진하는 한편, 전 세계 SMR 생산 점유율 60% 달성을 목표로 글로벌 파운드리 거점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김명주 경남도 경제부지사는 "SMR 로봇활용제작지원센터, 시험검사지원센터 구축을 기반으로 SMR 특구 경남 지정을 추진해 전 세계 SMR 제조 시장 점유율 60% 달성을 목표로 글로벌 SMR 제조 파운드리 거점 경남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metroseoul.co.kr



metro



중국 항저우 부산관광 단독 로드쇼 k-pop 공연 무대 관람하는 모습. /부산관광공사

부산, 글로벌 가성비 관광도시 주목

숙박·교통·외식비 낮고 만족도 높아
평균 숙박 53달러로 최저권 평가

부산이 글로벌 수준의 관광 인프라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경쟁력 있는 도시로 국제 무대에서 잇따라 주목받고 있다.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는 최근 발표된 국제 비교 자료를 통해 부산이 숙박·교통·외식 전반에서 가격 부담이 낮으면서도 서비스와 체감 만족도가 높은 도시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야놀자리서치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의 평균 숙박 가격은 53달러로 조사 대상 도시 가운데 최저권에 속

한다. 보고서는 이를 단순한 저가가 아니라 '5성급 하드웨어를 3성급 예산으로 제공하는' 가성비로 해석했다.

대중교통과 택시 요금, 외식비 역시 글로벌 주요 도시 대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 숙박시설의 편의성, 팁 없는 외식 구조, 무료 식사 제공 같은 요소도 실제 체감 가치를 높이는 요인으로 꼽혔다. 글로벌 여행 플랫폼들의 평가도 부산의 경쟁력을 뒷받침한다. 익스피디아(Expedia)는 일본 골든위크 기간 일본인이 선호하는 가성비 해외 여행지 1위로 부산을 선정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7@

울산, 친환경선박 소부장 특화단지 유치 총력

HD현대중공업과 상생 협약 체결

울산시가 조선 산업 핵심 소재·부품 국산화를 위해 HD현대중공업과 손잡고 소부장 특화단지 유치를 나선다.

시는 28일 시청에서 김두겸 울산시장과 금석호 HD현대중공업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친환경선박 생태계 구축을 위한 상생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산업통상부의 소부장 특화단지 공모 신청에 따라, 울산 주력 산업인 조선 산업 핵심 소재·부품의 국산화와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울산시가 추진 중인 '친환경선박기자재 소부장 특화단지'는 LNG선 등 친환경선박의 핵심 장비인 '선박용액화가스 펌프' 등을 전략 품목으로 육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해당 품목은 기술 난도가 높아 현재 해외 의존도가 높은 분야로 꼽힌다.

협약에 따라 울산시는 특화단지 조성·운영 전반을 지원하고 기업 투자 및 기술 개발을 위한 행정·재정적 뒷받침에 나선다. HD현대중공업은 수요기업으로 참여해 공급망 구축을 주도하고, 지역 소부장 기업과 공동 기술 개발 및 실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울산=박기선 기자 metrobusan7@

충남,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전략 마련

인구감소 시군과 투자계획 컨설팅

충남도가 지방소멸 위기 공동 대응과 효율적인 기금 활용을 위해 인구감소 지역 시군과 함께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섰다.

도는 28일 스피러스 리솜에서 도·시군 공무원과 행정안전부 관계자, 충남연구원, 민간 전문가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컨설팅을 개최했다.

이번 컨설팅은 내년부터 전면 개편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배분 체계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시군별 투자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편되는 기금은 기존 시설 건립 중심에서 벗어나 인구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집

중된다. 또한 프로그램 운영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되며, 투자계획 평가 시 주민 참여 여부와 중기 계획, 국정과제 반영 여부 등도 주요 기준으로 포함된다.

특히 성과에 따른 재원 배분 격차가 확대되고, 최고 등급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도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이날 컨설팅에서는 도와 시군 간 투자계획 수립 현황을 공유한 뒤, 시군별 투자 방향과 사업 목록에 대한 전문가 자문이 이어졌다. 이를 통해 각 지역의 인구·산업 구조에 맞춘 차별화된 전략 수립을 지원했다.

김종수 충남도 인구전략국장은 "각 시군이 보다 많은 기금을 확보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충남=양대승 기자 zzica@

경북, 벤처투자 생태계 강화 나선다

청년 창업·투자·정책 선순환 추진

경북도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청년 창업과 투자, 지역 정착을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발굴·육성·투자'로 이어지는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 지역 혁신기업이 수도권으로 이동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두 축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전략이다.

벤처투자의 효과도 수치로 확인되고 있다. 2022년 기준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의 고용 증가율은 29.8%로 일반 벤처기업이나 전체 기업보다 크게 높았

다. 같은 해 경북에서는 1,167억 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지며 326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됐다.

지역 창업 생태계는 포항·경산·구미를 축으로 한 'G-star 밸리'를 중심으로 확장되고 있다. 체인지업 그라운드와 임당유니콘파크, 구미 스타트업파크 등 거점 시설을 통해 창업기업 입주와 성장을 단계별로 지원하고 있다.

창업기업 지원 체계도 전주기 강화됐다. 아이디어 발굴부터 기술 고도화, 투자 연계, 글로벌 진출까지 이어지는 구조를 구축해 야기유니콘 기업과 TIP S 선정 기업 등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투자 기반 확대도 병행되고 있다. 경북도는 '경북 G-star 펀드'를 중심으로 2028년까지 5천억 원, 2034년까지 1조 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추진 중이다.

/경북=김준현 기자 kih9@

경주시

전국 힐클라임 대회 6월 개최

경주시 한수원 본사와 풍력발전소 일대에서 열리는 '2026 한수원과 함께하는 경주 바람의 언덕 전국 힐클라임 대회'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친환경 가치 확산을 목표로 오는 6월 14일 열린다. 이번 대회는 경주시 사이클연맹이 주최·주관하고 한국수력원자력 웰빙원자력본부가 협찬한다. 웰빙원자력본부는 4년 연속 후원을 이어오고 있으며, 단순한 스포츠 행사를 넘어 자전거 이용 문화 확산과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지난해에는 약 500명의 선수가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경주(경북)=김진천 기자 jingon@

영천시

정우하이텍 150억 투자 유치

영천시는 28일 시청에서 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정우하이텍과 15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지역 산업 기반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 유치 차원에서 추진된 이번 협약식에는 최정애 영천시장 권한대행과 정혜순 정우하이텍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정우하이텍은 영천금호일반산업단지 내 1만6,528㎡ 부지에 생산시설을 확충한다. 시트 프레임과 카울크로스바 등 자동차 핵심 부품 생산라인을 구축할 계획으로, 사업 완료 시 약 50명의 신규 고용이 예상된다.

/영천(경북)=김준현 기자

영덕군

해녀·해남 복원사업 1기 교육

영덕군이 사라져가는 어촌 전통을 되살리기 위해 해녀·해남 양성 사업을 본격화한다. 청년 참여를 기반으로 어촌 일손 부족과 공동체 활력 회복을 동시에 겨냥한다. 이웃사촌마을지원센터는 한국프리아이빙협회와 협력해 '동해안 해녀·해남 복원사업' 1기 교육을 5월 2일부터 시작한다. 해양 활동과 관광 요소를 결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어촌 일자리 모델을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 과정은 총 70시간으로 구성되며 5월 31일까지 주말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선발된 교육생 25명은 잠수 기술과 해양 작업에 필요한 기초 역량을 익히게 된다. /영덕(경북)=손기섭 기자 gtnews8082@

산청군

황매산철쭉제 내달 1일 개막

산청군은 '제42회 산청황매산철쭉제'를 오는 5월 1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 국내 최대 철쭉 군락지로 꼽히는 황매산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철쭉제는 '산청, 봄이 피어나는 찰나'를 주제로 진행된다. 행사는 5월 1일 황매산 철쭉제 단에서 열리는 '철쭉 풍년 제례'로 막을 연다. 풍년과 군민 안녕, 축제 성공을 기원하는 제례를 시작으로 ▲황매산에서 보내는 느리게 가는 러브레터 ▲어린이 황매산 스탬프 투어 ▲장승·바람개비 만들기 ▲아로마 향기주머니 만들기 ▲족욕체험 ▲사진인화 이벤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산청(경남)=이도식 기자

‘방한객 증가’ 내수부진 빈자리 채운다... 外人 잡기 ‘총력’

유통업계, 내수 공백 새 활로 모색
고환율에 쇼핑여력 커진 관광 수요
롯데·신세계·현대백 실적 급증
롯데마트·이마트 편의시설 확대
GS25·CU·이마트24 K콘텐츠 강화



롯데마트 제타플러스 서울역점 매장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쇼핑하는 모습. /롯데마트

국내 소비 심리가 위축되며 내수 부진이 심화되는 가운데, 원화 약세로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 여력이 확대되면서 유통업계가 이들을 새로운 핵심 고객층으로 끌어들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소비 위축과 관광객 증가가 맞물린 상반된 흐름 속에서 외국인 수요가 내수 공백을 메울 대안으로 부상한 것이다.

29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유통업계는 내국인 소비가 위축된 상황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새로운 매출원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보고 대응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6년 4월 소비

심리지수(CCSI)는 전월 대비 7.8포인트 급락한 99.2를 기록하며 비관 국면으로 전환됐다. 반면 같은 날 기준 원·달러 환율은 1477원까지 상승해 외국인의 체감 구매력은 높아졌다. 실제로 올해 1분기 방한 외래관광객은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한 약 476만 명으로 1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내수와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유통업계는 외국인 수요를 내수 부진을 보완할 대안으로 삼고 있다. 백화점 업계에서는 외국인

매출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롯데백화점은 올해 1분기 외국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00% 증가해 지난해(40%)보다 성장세가 가팔라졌고, 신세계백화점도 80% 늘며 일부 점포에서는 비중이 30%에 육박했다. 더현대서울 역시 외국인 매출이 121% 증가했다.

이에 롯데백화점은 ‘롯데 투어리스트 멤버십’을 잠실 롯데타운으로 확대했고, 신세계백화점은 센텀시티점을 중심으로 ‘글로벌 쇼핑 페스타’ 등 체험형 콘텐츠를 강화해 외국인 매출 비중을 전년 대비 2배 이상 끌어올렸다.

대형마트도 외국인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롯데마트는 일본 온라인 여행 플랫폼(OTA) ‘코네스트’와 협업해 입국 전 할인 쿠폰을 제공하고 호텔과 연계한 방문 동선을 구축했으며, 이마트는 외국인 방문이 많은 매장에 환전 ATM, 텍스리펀 키오스크, 캐리어 보관함 등 편의 시설을 확대할 계획이다.

편의점은 K-컬처 체험 공간으로 역할을 확장하고 있다. GS25는 외국인 결제 수단 확대와 ‘K-편의점 가이드북’, 환전 키오스크·외화결제·택스리펀드 등을 도입했고, CU는 비자 대행과 38개 언어 AI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마트24는 명동 ‘K-푸드랩’에서 170여종 라면을 매운맛 단계별로 진열하고 4개 국어 설명을 제공해 외국인 경험을 강화했으며, 해당 점포 매출은 일반 점포 대비 2.9배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고물가와 경기 불확실성으로 내수 소비가 쪼그라들면서 상황에서 환율 효과를 누리는 외국인 관광객은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라며 “단순한 물물건 판매를 넘어 한국에서만 즐길 수 있는 특화 콘텐츠와 편의 서비스를 강화해 이들의 발길을 붙잡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metro

롯데웰푸드, 스트레이 키즈와 빼빼로 글로벌 공략

캠페인 영상 조회수 1.6억회
수출액 전년 대비 25% 증가

롯데웰푸드가 글로벌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빼빼로’ 브랜드의 경쟁력을 지속 제고하기 위해 빼빼로 글로벌 앰배서더 ‘스트레이 키즈(Stray Kids)’와 계약을 연장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스트레이 키즈를 필두로 전개한 빼빼로 글로벌 마케팅이 역대급 성과를 기록함에 따라 올해도 파트너십을 이어가기로 결정한 것이다.

스트레이 키즈는 지난해 5월 앰배서더 발탁 이후 특유의 개성과 에너지를 빼빼로 브랜드에 투영해 글로벌 잘파(B+alpha) 세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런 인기로 힘입어 빼빼로데이 글로벌 캠페인은 2024년 15개 지역에서 지



스트레이 키즈. /롯데웰푸드

난해 35개 지역으로 확대돼 한국만의 특별한 기념일을 더욱 널리 알릴 수 있었다. 지난해 빼빼로 수출액은 약 870억

원을 기록하며 2024년(700억 원) 대비 약 25% 신장해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갔다. 이는 글로벌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2020년과 비교하면 세 배 수준으로 늘어난 수치다.

특히, 미국과 캐나다를 합친 북미 지역의 인기가 돋보였다. 25년 북미 지역의 매출은 전년대비 약 36% 신장하며 지속적인 빼빼로데이 글로벌 마케팅 성과를 입증했다. 롯데웰푸드는 2023년부터 글로벌 앰배서더를 앞세워 빼빼로데이 시즌 동안 뉴욕 타임스퀘어와 LA 중심가 등에서 초대형 옥외광고를 집행하고 있고, 재작년부터는 11월 11일 당일 타임스퀘어에서 빼빼로를 체험해볼 수 있는 현장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의 영향력 또한 대단했다. 지난해 빼빼로 스

트레이 키즈 캠페인 영상의 누적 조회수는 약 1억 6천만회로, 전년 캠페인 콘텐츠 대비 440% 증가했다. 페루에서는 스트레이 키즈를 활용한 콘텐츠 SNS 반응 수가 일반 콘텐츠 대비 26배 증가하는 등 전 세계 곳곳에서 글로벌 앰배서더 효과를 톡톡히 봤다. 뉴욕 타임스퀘어 옥외광고와 데이당일 체험 이벤트 활동을 통해 20만 명의 방문객을 모객한 점도 주요한 성과로 꼽힌다.

글로벌 앰배서더를 활용한 빼빼로데이 기념 패키지 판매 전략도 주효했다. 빼빼로데이 글로벌 캠페인을 진행하는 35개국에서 스트레이 키즈 온팩 패키지를 판매하며 글로벌 매출 성장을 견인했다. 필리핀, 대만 등에서는 각 지역별 채널 전용 기획 패키지를 별도로 만들기도 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아워홈 브랜드 ‘테이크’ 첫선

종각역에 1호점... B2C 확장 속도

아워홈은 오는 5월 1일, 서울 종로구 영풍빌딩 지하 2층에 뷔페 브랜드 ‘테이크(TAKE)’ 1호점을 공식 오픈한다고 29일 밝혔다. 약 823㎡(250평) 규모의 이번 매장은 지하철 1호선 종각역과 연결되어 있으며, 인근 직장인과 관광객을 주요 타깃으로 삼았다. 테이크는 ‘세계 각국을 여행하며 즐기는 미식’을 핵심 콘셉트로 설정했다. 기존 뷔페들이 한식, 중식, 일식 등 음식 종류별로 코너를 나누는 것과 달리, 테이크는 국가별 테마 스테이션을 구성해 지역 특색을 살린 것이 특징이다. 제공 메뉴는 주말 및 공휴일 기준 약 130여 종에 달한다. 가격은 성인 기준 ▲평일 점심 2만 3900원 ▲평일 저녁 2만 9900원 ▲주말 및 공휴일 3만 2900원으로 책정됐다. /신원선 기자

롯데마트, 수박 9990원 등 ‘통큰데이’

오늘부터 내달 6일까지 행사 진행

롯데마트가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통큰데이’ 행사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가정의 달과 연휴 수요를 반영해 먹거리, 캠핑용품, 선물용 상품 등을 중심으로 할인 혜택을 구성했다.

대표 할인 품목은 제철 수박이다. ‘통큰 수박(6kg 이상)’은 행사 카드 결제 시 9990원에 판매하며, 총 3만 통 한정으로 1인 1통 구매가 가능하다.

육류와 수산물도 할인 대상에 포함된다. 한우 등심·국거리·불고기는 행사 카드 결제 시 50% 할인하며, 훈제오리 슬라이스도 반값에 판매한다. 활대게와 전복 등 수산물도 할인 가격에 선보인다.

간편식과 가공식품 할인도 진행된다. PB 상품 ‘오늘좋은 숭결 통식빵’과 딸기잼은 2개 이상 구매 시 20% 할인되며, 컵라면 전 품목 2+1 행사, 치킨과 초



지난 4월 27일 롯데마트 제타플러스 잠실점에서 모델들이 롯데마트 ‘통큰데이’ 행사를 홍보하는 모습. /롯데마트

밥 할인 행사도 함께 운영된다. 캠핑·피크닉 수요를 겨냥한 먹거리와 음료, 주류 할인도 마련됐다. 어린이날을 앞두고 유아 간식과 과자류 1+1 및 묶음 할인 행사도 진행한다. 어버이날 선물 상품으로는 카네이션, 호접란, 건강기능식품 세트 등을 할인 판매하며, 일부 상품은 행사 카드 결제 시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김서현 기자

세븐일레븐, 치킨 할인으로 집밥족 공략

즉석식품 매출 증가세에 행사 확대

세븐일레븐이 5월을 맞아 즉석식품 할인 행사와 신상품 출시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외식 물가 상승과 1~2인 가구 증가로 즉석식품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세븐일레븐은 즉석치킨을 주요 카테고리 설정하고 관련 상품과 프로모션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즉석치킨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했다.

5월 한 달간 즉석치킨 20종을 대상으로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일부 상품은 2+1 혜택이 적용되며, 카드 또는 간편결제 이용 시 최대 40% 할인도 제공된다. 앱을 통한 당일 픽업 구매 시 추가 할인도 가능하다.

치킨 외 즉석식품 할인도 함께 운영된다. 세븐커피 음료 할인과 1+1 행사, 즉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가성비와 간편함을 앞세워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즉석식품 수요에 관련 프로모션 및 신상품 준비에 나섰다. /세븐일레븐

석피자 할인, 소프트콘 구매 시 증정 행사 등이 포함된다.

신상품 ‘핫칠리통모짜스틱’도 출시한다. 모짜렐라 치즈를 통째로 튀긴 간식으로, 판매가는 2900원이며 출시 기념으로 음료 증정 행사가 진행된다.

/김서현 기자

GS25

가정의 달 선물 130종 선봬

로봇·순금·한우까지 주문 판매

GS25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로봇, 순금, 한우 등 130여 종의 기획 상품을 선보인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상품은 전국 매장에서 주문 판매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기획전에는 로봇 상품이 포함됐다. AI 소셜 로봇 ‘리쿠’, 휴머노이드 로봇, 4족 보행 로봇, 소형 로봇 키링 등 총 11종이다. 일부 제품은 대화 기능과 감정 표현 기능을 갖춰 교육이나 돌봄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순금 상품도 함께 구성됐다. 카네이션 골드바 등 순금 제품 6종과 순은 제품 4종을 선보이며, 최근 관련 수요 증가를 반영했다. 먹거리 상품도 포함됐다. 한우, 수산물, 과일, 김치 등 다양한 품목을 구성했으며, 대표 상품으로 한우 등심 세트, 꽃게, 사과 등이 있다. 포장 간소화 등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높였다. /김서현 기자

중국 대신 북미·유럽... 아모레퍼시픽, 시장 다변화 통했다

1분기 연결기준 매출 1조1358억
중국 비중 줄이고 신흥시장 확대
국내 영업이익 전년비 65% 급증

아모레퍼시픽그룹이 글로벌 시장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유지하는 동시에 국내 시장에서도 수익성 개선을 이뤄냈다.

29일 아모레퍼시픽그룹에 따르면, 그룹 내 핵심 계열사 아모레퍼시픽은 올해 1분기 연결기준 매출 1조1358억 원, 영업이익 1267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6.4%, 영업이익은 7.6% 증가했다.

이 중 해외 사업 매출은 497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8% 커졌다. 영업이익은 56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 줄었다. 영업이익 감소는 투자 확대에 따른 일시적 수익성 둔화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북미, 유럽, 일본을 집중 공략하



글로벌 핵심 브랜드인 '라네즈'의 브랜드 모델 BTS 진이 신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

는 수출국 다변화 전략을 탄력을 받고 있다.

서구권과 기타 아시아 시장의 성장이 두드러진다. 미주 매출은 전년 동기 대

비 11.2% 증가한 1747억 원이다. 유럽·중동·아프리카(EMEA) 매출은 16.4% 커져 644억 원을 올렸다. 일본을 포함한 기타 아시아 지역 역시 15.0% 성장해 1431억 원의 매출을 냈다.

반면 체질 개선이 진행 중인 중화권 매출은 전년 대비 13.5% 감소한 1149억 원에 그쳤다. 중화권의 매출 비중이 12.4%에서 10.1%로 축소된 사이, 미주와 기타 아시아의 비중이 각각 15.4%, 12.6%로 확대되며 특정 국가에 편중되었던 리스크가 분산됐다.

호실적 배경에는 브랜드 포트폴리오 다각화와 공격적인 채널 확장이 주효했다.

더마 브랜드 에스트라의 경우, 북미 시장에서 '에이시카 라인'의 판매 호조가 이뤄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세 자릿수 성장했다. 또 올해 들어 유럽 17개 국가에 신규 진출하며 글로벌 확장을 본격화했다.

스킨케어 브랜드 라네즈는 네오쿠션, 주스팝 박스립 틴트 등 신제품을 꾸

준히 내놓았고 일본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 등 신흥 국가로 브랜드 입지를 넓혔다.

헤어 부문 사업도 가시화됐다. 생활용품 브랜드 일리운, 헤어 브랜드 미장센 등이 신성장 브랜드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해당 브랜드들은 아마존 '빅스프링 세일' 행사에서 판매 상위권에 오르는 등 전년 대비 3배 이상의 매출 성장을 달성했다.

이와 함께 국내 사업 매출은 626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81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5% 급증했다. 주요 브랜드 및 채널의 견고한 매출 성장에 힘입어 수익성이 큰 폭으로 개선됐다는 분석이다.

아모레퍼시픽은 국내 사업에서는 채널별 맞춤형 전략을 펼쳤다. 온라인 채널은 설 시즌과 연계한 프로모션이 성과를 내고, 출시 제품군이 다양해지면서 매출이 두 자릿수 성장세를 기록했다. 특히 네이버, 쿠팡, 카카오 등 주요

플랫폼 전반에서 고른 매출 증가가 나타나며 온라인 채널 내 입지도 한층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CJ올리브영 등 멀티브랜드숍 채널에서는 관광 상권을 공략했고, 마스크팩, 클렌징 등 엔트리 카테고리 제품군 확대가 실적 개선에 기여했다. 백화점 채널은 명절 선물 수요에 적극 대응한 데다 설화수 신제품 출시 효과가 더해지면서 매출이 증가했다.

반면 방문 판매, 대형 마트 등 기타 오프라인 채널은 고객 접점이 축소되면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모레퍼시픽그룹 관계자는 "서구권 시장의 견고한 성장세와 국내 사업의 수익성 개선이 이번 분기 실적을 뒷받침했다"며 "라네즈, 에스트라 등 글로벌 타깃 브랜드 육성과 신규 시장 개척을 통해 글로벌 리밸런싱 작업을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metro

삼바에피스, 中 바이오혁신센터와 연구 협력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사업 추진
유망 바이오텍 기업 초기 성장 지원

삼성바이오에피스가 29일, 중국 바이오 연구 개발 및 혁신 플랫폼사 '아틀라틀 이노베이션 센터(ATLATL Innovation Center)'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틀라틀 이노베이션 센터는 바이오 벤처기업과 글로벌 기업 간 연구 협력을 연계하여 기술 혁신과 사업화 가속화를 지원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바이오텍 인큐베이션 센터(성장 지원 기관)'로, 베이징, 상하이, 싱가포르, 호주 등 주요 바이오 클러스터에 공유 실험실, 사무공간 및 임상시험수탁기관(CR



삼성바이오에피스 연구실 모습.

O)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을 운영하고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이번 협약을 통해 유망 바이오텍 기업을 선정하여 해

당 기업의 초기 성장 지원을 위해 아틀라틀 이노베이션 센터 입주 및 연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해외 오픈 이노베이션 전문 기관과 사업을 추진하는 첫 번째 사례로, 향후 다양한 모달리티(치료 접근법)에 기반한 차세대 유망 바이오 기술을 조기에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오픈 이노베이션 팀장 서민정 상무는 "바이오 기술 개발 혁신에는 글로벌 차원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최첨단 인프라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차세대 바이오 신기술 발굴 및 연구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애경산업, 독자 구축 'AK3' 中 신원료 등록

한국 생산 등록 원료 약 1% 수준

애경산업은 독자 구축한 신소재 'AK3'를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의 화장품 신원료로 공식 등록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등록으로 AK3는 중국 시장에서 화장품 원료로 활용될 수 있는 필수 절차를 완료했다.

중국에서 화장품에 처음 사용되는 원료는 중국 NMPA 감독 아래 엄격한 심사를 거친다. 해외 생산 원료의 경우, 물리·화학적 특성 및 제조 공정, 독성학적 안전성 평가, 피부 자극 및 알레르기 반응 시험, 효능 검증 자료 등 광범위한 데이터를 제출한다. 또 기존 국내·글로벌 시험 자료와 별개로 중국 NMPA가 지정한 중국 시험 기관에서 별도 평가를 받는다. 애경산업은 NMPA의 엄격한 기준

을 충족하기 위해 AK3의 안전성과 효능을 체계적으로 검증했다. 중국 현지 지정 기관을 통해 독성 및 유효성 평가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최종 승인을 획득해 K뷰티 경쟁력을 높였다.

중국 NMPA의 화장품 신원료 등록 제도는 2021년 개정되며 문턱이 다소 낮아졌지만, 등록 사례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2021년 개정 후 2024년 4월까지 중국 신원료 누적 등록 건수는 444건이며, 이 가운데 중국의 국가에서 생산한 원료의 신원료 등록 건수는 66건에 불과하고 한국에서 생산한 원료의 신원료 등록은 약 1% 수준이다.

애경산업의 AK3는 국내 기업 기준 다섯 번째 등록 사례다. 특히 중국서 피부 보습 효능을 입증한 사례로는 최초의 사례이다. /이청하 기자

한국필립모리스, 신임 대표이사에 이홍석

커머셜·전략 등서 뛰어난 성과

한국필립모리스는 오는 5월 1일부로 이홍석 비연소 제품 총괄 디렉터(사진)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신임 대표는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 그룹 및 글로벌 시장 전반에서 쌓아온 폭넓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1999년 한국필립모리스 입사 이후 커머셜 및 전략 등 핵심 부문에서 뛰어난 성과를 축적해 왔다.

바실리스 가젤리스(Vassilis Gkatzelis)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 동아시아·호주 및 글로벌 면세사업부 총괄 사장은 "한국과 같은 핵심 시장에서 이해관계자와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강력하고 경험 있는 리더십이 필수적"이라며 "이 신임 대표는 검증된 커머셜 성과를 이



끌어 온 리더로, 한국 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추고 있다. 그의 선임은 비연소 제품 포트폴리오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성인 흡연자를 위한 '담배연기 없는 미래(Smoke-free Future)' 비전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국필립모리스에서 커머셜 오퍼레이션과 마케팅 분야의 주요 직책을 두루 역임하며, 한국 시장 및 소비자 니즈에 대한 깊은 이해를 쌓아왔다. 이후 싱가포르와 홍콩에서의 리더십 경험을 쌓은 뒤, 2018년 필립모리스 대만의 법인장으로 선임돼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사업 성장과 조직 혁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신원선 기자

스타벅스 콜드브루 라인업 강화

스타벅스 코리아가 콜드 브루 국내 출시 10주년을 맞아 4월 30일부터 신규 콜드 브루 음료 2종을 선보이며 음료 라인업을 강화한다.

스타벅스 콜드 브루는 숙련된 전문 바리스타의 추출 방식과 정성을 통해 완성되는 프리미엄 아이스 커피로, 스타벅스가 엄선한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 원두를 20시간 동안 저온에서 천천히 추출해 부드럽고 깔끔한 맛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일반적인 아이스 커피 대비 산미와 쓴맛이 적어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점에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2016년 국내 출시 이후 콜드 브루 카테고리 음료의 누적 판매량은 2억 7천만 잔을 돌파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으며, 스타벅스의 대표 커피 메뉴로 자리 잡았다. /신원선 기자

'팬덤 성지'된 롯데시네마, 아티스트와 협업

미공개 포토카드 등 출시

롯데시네마는 단순한 영화 관람 공간을 넘어 아티스트와 팬이 함께 호흡하는 '팬덤 경험의 목적지'로 거듭나고 있다. 최근 다양한 아티스트와의 협업을 통해 관객들에게 몰입형 콘텐츠를 제공하며 새로운 관람 트렌드의 중심에 섰다.

롯데시네마는 최근 JYP엔터테인먼트와의 협업을 통해 극장 곳곳에 아티스트의 색채를 입혔다. '킥필름(KickFilp)'을 시작으로 '엑스디너리 히어로즈(Xdinary Heroes)', '엔믹스(NMIXX)'까지 글로벌 팬덤을 보유한 아티스트들이 직접 출연하는 관람 에티켓 영상은 팬들에게 뜻밖의 즐거움을 선사했다.

오직 극장에서만 만날 수 있는 다채로운 마케팅도 눈길을 끈다. 아티스트의 미공개 포토카드가 포함된 스위트샵



롯데시네마 르세라핌 VR 콘서트 머치 /롯데컬처웍스

(매점) 콜라보 콤보는 팬들의 소장 욕구를 자극하며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또한 상영관 외부로 아티스트의 비주얼로 꾸며 영화 관람 전부터 설렘을 선사하는 브랜드 상영관은 팬들의 성지로 자리매김하며 N차 방문을 이끄는 강력한 동력이 되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아, 오늘이 내 인생의 클라이맥스구나. ”

뮤직드라마

불편한 편의점 2

Always

2026.4.1 - OPEN RUN 후암씨어터

원작 김호연 불편한 편의점 (나무옆의자 2022) | 총괄 프로듀서 황기현 | 각색·작사 박예슬 | 연출 승운 | 작곡·음악감독 서진영 | 무대디자인 주미영
조명디자인 정필균 | 음향디자인 안형록 | 무대제작 드림아트컴퍼니(주) | 제작PD 박민서

주최·주관 극단 지우 | 기획 (주)지우컴퍼니 (주)제이엘컬처 | 후원 나무옆의자출판사 waterfallstory | 예매처 NOLticket | 문의 02-332-4902



K-제약바이오, 글로벌 마케팅 '원팀' 공식 출범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바이오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함께 29일 서울 코엑스에서 'K- 제약바이오 글로벌 마케팅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왼쪽에서 세 번째) 등 주요 관계자가 협약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CJ프레시웨이 '튼튼스쿨', 기후급식 캠페인 진행
CJ프레시웨이의 학교급식 특화 브랜드 '튼튼스쿨'이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와 손잡고 '기후급식 캠페인'을 진행한다. CJ프레시웨이는 전날 기후부와 협력해 '미래 세대 환경 인식 제고를 위한 기후급식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양측은 학교급식을 기반으로 학생들의 환경 감수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식문화 확산하는 데 협력할 계획이다. /CJ프레시웨이



롯데칠성음료-SK에코플랜트, 온열질환 예방 '맞손'
롯데칠성음료는 전날 'SK에코플랜트'와 손잡고 올여름 폭염에 대비해 건설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김경훈 SK에코플랜트 최고안전책임자(CSO), 서인한 롯데칠성음료 영업1본부장(오른쪽)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롯데칠성음료



포스코DX '전국 청소년 AI 창의 경진대회'
포스코DX는 인공지능(AI)을 주제로 한 '전국 청소년 AI 창의 경진대회'를 열고 미래 인재 발굴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이온 중심 교육을 넘어 청소년들이 산업현장의 전문가들과 함께 AI 기술 구현을 고민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AI 인재를 조기에 발굴·육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올해 주제는 '일상생활과 산업현장 속 불편을 개선하는 AI 솔루션'이다. /포스코DX



LG생활건강, '빌려쓰는 지구스쿨' 수업 확대
LG생활건강은 지난 28일 청주 청원구 생명중학교에서 올해 첫 '빌려쓰는 지구스쿨' 수업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빌려쓰는 지구스쿨은 '누구나 할 줄 알지만 한 번도 배워본 적 없는' 기본적인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꿈과 진로를 함께 고민해보는 국내 최초의 융합형 습관 교육 프로그램이다. /LG생활건강

'LX 사이언스 펠로우십' 통해 기초과학연구 인재 육성

LX그룹, 서울대 자연과학대서 첫 번째 수상자 장학금 수여
구본준 회장 "주역들 성장에 아낌없는 지원 이어갈 것"

구본준 LX그룹 회장이 기초과학연구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나섰다. LX그룹은 지난 28일 서울대 자연과학대에서 'LX 사이언스 펠로우십(LX Science Fellowship)' 첫 번째 수상자를 선정하고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구본준 회장, LX홀딩스 CHO 김진혁 전무, 서울대 유재준 자연과학대학장, 황점식 자연과학대 교무부학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구 회장과 서울대에서 함께 공부했던 허명희 고려대 명예교수, 김명준 전 ETRI 원장도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LX그룹 구본준 회장(오른쪽)과 서울대 유재준 자연과학대학장(왼쪽)이 지난 28일 서울대 자연과학대에서 'LX 사이언스 펠로우십(LX Science Fellowship)' 장학금 수상자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X그룹

구 회장은 계산통계학과를 졸업했다. 'LX 사이언스 펠로우십'은 서울대 자연과학대학 소속의 학부생, 대학원생 및 수료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장학 프로그램이다. 구본준 회장의

뜻에 따라 미래 과학기술 발전을 이끌 기초과학 분야의 차세대 우수 인재 발굴과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에 선발한 장학생은 통계학과 박사과정 오선민 씨와 화학부 박사과

정 함경호 씨로, 각각 인과구조학습 관련 연구와 산화환원 활성 포스핀 화합물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구 회장은 이날 서울대 교수진 및 대학원생들과 연구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국가와 사회의 미래 기술 경쟁력을 좌우하는 기초과학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LX그룹과 서울대는 향후에도 기초과학 분야 연구 인재 육성에 지속적으로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구본준 회장은 "과학기술 혁신의 근간은 젊은 연구자들의 도전 정신과 창의적 연구 역량이 있다"며 "LX 사이언스 펠로우십을 통해 미래 과학기술의 주역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삼성 SSAFY, 수료생 성장과정 공유 SK네트웍스, 소통·협업 조직문화 확산

첫 번째 수기 공모집 발간

삼성청년SW·AI아카데미(이하 SSAFY)는 수료생들의 도전과 성장 과정을 담은 첫 번째 수기 공모집을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SSAFY는 지난해 8~9월, 1~8기 수료생과 가족 등 약 6000명을 대상으로 수기 공모를 진행했으며, 이 가운데 우수작들을 선정해 'AI 대전환 시대, 주니어 인재의 시작: SSAFY'를 펴냈다. 수기 공모집은 2018년 SSAFY 출범 이후 SSAFY를 통해 꿈을 이룬 청년들의 도전과 성장 스토리를 담았음 수기 공모집은 '비전공', '나이' 등의 장벽을 넘어 SW·AI 인재로 성장한 사례를 소개해 미취업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기획됐다. SSAFY는 향후에도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수기 공모를 진행해 공모집

발간을 이어갈 계획이다. SSAFY 수기 공모집은 미취업 청년들에게 진로·취업 가이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모집에는 ▲비전공자로서 개발자의 꿈을 이룬 청년 ▲29세의 늦은 나이에 SW개발자로 전향한 마케터 ▲SSAFY 수료 후 일본에서 창업에 성공한 사례 등 SSAFY를 통해 새로운 삶을 개척한 다양한 이야기가 담겼다. 공모집은 SSAFY 캠퍼스를 비롯해 수료생, SSAFY 자문 교수진 등에 배포돼 교육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SSAFY 관계자는 "이번 수기 공모집은 대한민국 미래 산업을 이끌 청년들이 SW·AI 인재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담은 기록"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청년들이 AI 시대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hyeon@

가정의달·어버이날 행사 진행 SKMS Day 운영... 구성원 소통

SK네트웍스가 구성원들의 일상에 활력을 더하고, 소통과 협업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해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 SK네트웍스 관계자는 "계절 및 사내일정과 연계해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다양한 조직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회사'의 의미를 더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회사는 지난 28일 다가오는 가정의 달과 어버이날을 맞아 '카네이션 캔들 만들기' 행사를 진행해 구성원들이 직접 부모님께 드릴 특별한 선물을 만들며 따뜻한 의미와 추억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설 명절에는 '아이싱쿠키 클래스'를 열어 구성원들이 직접 쿠키를 꾸미며 창의력과 힐링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봄맞이 '청계천 러닝 클래스', '퍼스널 티블렌딩 클래스' 등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SK네트웍스는 매월 세 번째 금요일에 'SKMS Day'를 꾸준히 운영하고 있다. SKMS Day에는 대표이사 등 경영층이 직접 회사의 현황과 방향성을 공유하고 특별 소개, AI 및 DT 우수 사례 발표, SKMS 퀴즈대결, 명사초청 강연 등을 통해 구



SK네트웍스 지난 28일 구성원들이 가정의 달을 맞아 카네이션 캔들 만들기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 /SK네트웍스

성원과 소통하는 '커넥트 타임'이 이뤄진다. 이 프로그램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며, 회사의 방침 공유는 물론 구성원들의 의견이 경영에 반영되는 등 실질적인 기업문화 조성의 시간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올해에는 AX 우수 사례 발표, 실무 현장 경험 공유 등 더욱 풍성한 콘텐츠를 준비해 구성원들의 관심과 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SK네트웍스는 이처럼 경영층과 구성원이 함께하는 소통의 시간을 꾸준히 마련해 경영철학과 사업 목표를 공유하고 현장 소통을 통해 실행력을 높이는 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SK네트웍스 관계자는 "경영층과 구성원 간 소통은 한마음 한뜻에 기반한 실행력 강화의 핵심"이라며 "AI 중심 사업지주회사로서 실행력과 성장기반을 다질 수 있는 다양하고 진정성 있는 소통 프로그램을 통해 구성원과 함께 성장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 데뷔전 완주

세계 최고 권위 내구 레이스 대회

제네시스의 고성능 레이싱팀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이 세계 최고 권위의 내구 레이스 무대에서 성공적인 첫발을 뗐다. 자체 개발한 전용 엔진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6시간의 극한 주행을 버텨내며 완주라는 1차 목표를 달성했다. 특히 기존 강팀들을 긴장시키는 랩타임을 기록하며 글로벌 모터스포츠 시장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제네시스는 소속 레이싱팀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이 '2026 FIA 월드 인듀어런스 챔피언십(WEC)' 개막전 '이탈라 6시간' 레이스 최상위 등급 '하이퍼카' 클래스에 참가해 첫 번째 레이스의 목표였던 완주에 성공했다고 29일 밝혔다. 제네시스는 지난 2024년 12월 두바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 출전 차량. /제네시스

이에서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을 최초로 공개하고 자체 엔진 개발 및 레이스 운영진, 드라이버 라인업을 구성했다. 이후 지난해 2월 GMR-001 하이퍼카에 월드 랩리 챔피언십(WRC)의 현대 모터스포츠 직렬 4기통 터보 엔진을 기반으로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 전용 엔진 'G8MR 3.2L 터보 V8'을 개발해 적용하고 2만5000km에 달하는 시험 주행 및 내구력 평가를 거치며 성능을 입증했다. /양성운 기자 ysw@

인사

- ◆해양수산부 ◇과장급 전보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윤영자
- ◆부여군 ◇4급 승진 △안중완 문화체육복지국장 △이종록 농림축산환경국장
- ◆금융위원회 ◇부이사관 승진 △디지털금융총괄과장 정선인 ◇서기관 승진 △금융정책과 김경호 △산업금융과장원석 △디지털금융총괄과 배인정 △자본시장과 노소영 △행정인사과 최준필

부음

- ▲김우호씨 별세, 이정숙씨 남편상, 김병준(LG생활건강 홍보팀 선임)·소영씨 부친상=30일, 일산북음병원장례식장 5호, 발인 5월1일 오전 9시.
- ▲김용훈씨 별세, 김창학(중부일보 정치 2부 국장)씨 부친상 = 29일 오전 12시9분,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장례식장 9호실, 발인 5월1일 오전 6시 031-900-0444

'AI 모빌리티 전환' 국가전략 되어야



아성욱
스마트카 'TALK'

제4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은 단순한 중기 행정계획이 아니라, 우리나라 자동차산업과 교통체계, 국민 이동권을 재설계하는 국가전략이어야 한다.

정부가 제시한 자율주행, UAM, 전기차 안전, 배터리 산업 육성, 자동차 분야 규제개선, 소비자 보호 확보를 위한 방향은 맞지만 기존 정책의 연장선에서 머물지 않고 기술·제도·운영·인프라를 통합한 실행력 있는 체계로 고도화되어야 한다.

특히 AI의 발전으로 모빌리티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생성형·에이전틱·피지컬 AI의 확산은 자율주행을 규칙 기반에서 학습형 체계로 전환시키고 있다. 자동차정책 역시 '관리' 중심에서 AI 모빌리티 전환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될 필요가 있다.

우선 자율주행 정책의 중심을 실증 확대에서 운영체계 완성으로 전환해야 한다. 상용화의 핵심은 실증 규모가 아니라

원격운영, 통합관제, 플랫폼, 책임·보험체계, 시민 수용성 등이다. 따라서 무사고 주행거리, 원격개입 빈도, 서비스 전환율 등 운영성과 지표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차량 중심을 넘어 도시 단위 AI 모빌리티 전략도 필요하다. 자율주행은 차량, 인프라, 데이터, 관제, 서비스가 결합된 시스템이므로, 자동차정책도 도시 기반 통합 운영체계를 포함해야 한다.

전기차 정책은 제작 단계에서 운행·정비·거래까지 전주기로 확대되어야 한다. 정비 인프라, 인력 교육, 배터리 상태 공개, 이력관리 등 실질적 안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사용후배터리 정책은 산업 육성보다 책임체계 정립이 우선이다. 상태평가, 이력추적, 사고 책임 기준을 명확히 해야 사회적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또 소비자 보호는 규제 강화보다 정보 투명성 확보가 핵심이다. 사고·정비·배터리·소프트웨어 이력 등을 통합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규제개선은 건수가 아니라 승인기간 단축, 비용 절감, 안전 향상 등 효과 중심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4차 계획은 중앙정부의 선언적 계획이 아닌 지역 현장에서 실행되어야 한다. 도시 규모와 여건에 맞는 차등형 정책과 지역 협력체계가 필수적이다.

결국 제4차 계획은 자동차 관리가 아니라 AI와 데이터, 자율주행과 전동화, 안전과 소비자 보호, 지역 실행력과 산업 생태계를 어떻게 하나의 체계로 연결할 것인가를 묻는 국가전략 문서가 되어야 한다.

미래차는 기술 그 자체만으로 산업이 되지 않는다. 제도적 신뢰, 인프라의 수용력, 운영체계의 완성도, 소비자의 신뢰가 함께 구축될 때 비로소 산업과 서비스로 정착할 수 있다.

기술-제도-운영-도시 구현이 하나의 구조로 맞물리는 정교한 설계와 안전성, 산업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는 실행 전략이다. 제4차 계획이 이러한 수준에 도달할 때, 비로소 우리 자동차정책은 미래차 육성을 넘어 대한민국 이동체계 전환의 기준을 제시하는 국가계획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중부대 교수

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KASA) 회장

5월, 악마가 프라다를 입는 계절



이지수첩
이청하
(유통&라이프부)

지난 2006년 개봉한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의 속편이 공개된다. 20년 전 영화지만 대중은 여전히 편집장 '미란다'의 카리스마와 비서 '앤디'의 화려한 변신을 추억한다. 유명 패션잡지 런웨이를 배경으로 치열한 커리어의 세계를 그린 이야기 속에서 정작 오늘날 관객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또 다른 비서 '에밀리'의 얼굴이다.

에밀리는 파리 패션위크를 목표로 버티고 있지만 패션에는 관심 없었던 굴러들어온 돌 앤디가 그 기회를 빠르게 차지한다. 에밀리는 '나는 내 일을 사랑해'라고 외치며 조직의 가치관을 내면화하는데 앤디는

조직을 수단으로 여긴다. 결국 앤디는 런웨이를 떠나며 '미란다 비서 출신'이라는 명성을 활용해 원하는 곳으로 점프한다. 이때 영화 제목은 현실의 문장으로 다시 읽힌다. 악마 '가' 프라다를 입는다.

현실도 종종 그렇게 흘러간다. 앤디의 서사가 영리한 '이직 성공 사례'가 된다.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에밀리들은 '대체 가능한 소모품'으로 격하되곤 한다.

앤디는 파리 출장을 가로챈 미안함을 명품 옷 몇 벌로 표현하고 에밀리의 입꼬리가 씩씩해지는 장면이 연출된다. 에밀리가 원하는 것은 물질보다 자신이 쏟은 열정에 대한 인정과 성취였을 테지만, 노력과 결과가 어긋난 순간을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 사회 역시 본질적인 갈등을 소모품적 보상으로 봉합하고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보게 하는 대목이다.

5월에는 각종 기념일이 있어 연휴가 이

어지는 동시에, 휴무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 근로 또한 뒷받침되고 있다. 이러한 노동의 비대칭성이 불합리한 것은 아니다.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경제 선순환을 위해 누군가는 일해야 하며 남들이 쉬 때 두 배로 뛰어야 하는 직군도 존재한다. 다만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현장 사수는 기회를 쫓아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된 앤디들이 아니라 자기 자리에 뿌리 내린 에밀리들이라는 점이다.

문제는 존중 결핍이다. 조직이 효율성에 중점을 두는 것은 숙명이지만 그 과정에서 사람에 대한 예의를 놓치고 있지는 않느냐 다시금 짚어본다. 앤디가 떠난 후의 에밀리는 K직장인의 단면이다. 프라다 뒤, 보이지 않는 근로의 소외를 정당화하지 않는 것이 20년 만에 다시 만날 악마들에게 요구하는 최소한의 조직 윤리다.

/mlee236@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30일 (음 3월 14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험난하고 힘든 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60년생 꿈같은 시기를 만났습니다. 72년생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84년생 상사와 서로 화합하여 우의를 돈독히 합니다.



49년생 유희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될 것입니다. 61년생 유희에 넘어가지 마세요. 73년생 애정운이 정말 좋습니다. 85년생 공로를 취하려는 자리가 의지가 솟구칩니다.



50년생 좋지 않은 시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62년생 때를 기다려야 하는 시기입니다. 74년생 경거망동을 삼가세요. 86년생 언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51년생 구설수를 조심하세요. 63년생 남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됩니다. 75년생 욕이 떨어지고 기운이 없습니다. 87년생 재물욕심을 내면 큰 화를 보게 됩니다.



52년생 매사 기로에 서서 같음을 느끼게 됩니다. 64년생 학업운이 좋습니다. 76년생 경제적 빈곤이 걱정됩니다. 88년생 좋은 인연이 생기니 진심으로 생각해 볼 시기입니다.



53년생 울바르지 못한 생각은 멀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65년생 일이 잘 풀려나갑니다. 77년생 자녀에게 좋은 소식이 있을 것입니다. 89년생 현재 일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54년생 일에 있어서 너무 급하게 나아가지는 마세요. 66년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셨습니다. 78년생 대중교통이용에 주의하세요. 90년생 외출을 삼가하세요.



55년생 몸관리에 유념하세요. 67년생 소매치기에 유의하세요. 79년생 전화위복이란 이럴때 쓰는 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91년생 우연한 기회에 복운을 만나 평온해 지겠습니다.



56년생 커다란 혜택을 보게 됩니다. 68년생 허황되게 갖지 못할 물건에 마음을 듭니다. 80년생 소박한 행복을 꿈꾸면 매우 길하겠습니. 92년생 큰 기대를 하지 마세요.



57년생 자녀에게서 생각도 못했던 좋은 선물을 받습니다. 69년생 아직 생각을 다시 하도록 하세요. 81년생 시작만 있고 끝이 없으니 하는 일이 뜬구름 같습니. 93년생 운동을 하면 좋습니다.



58년생 사소한 근심 거리가 있으나 쉽게 해결됩니다. 70년생 귀인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82년생 중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94년생 재정문제는 당분간 어려워 집니다.



59년생 여행운은 길합니다. 71년생 구설수에 오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83년생 맛있는 음식 먹고 행복한 하루를 보냅니다. 95년생 뒷사람한테 안 좋은 인상을 주게 됩니다.



김상회의四季

길상한 반안살

현대는 과거처럼 귀족이나 양반과 같은 사회적 신분체계가 약화하였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정치·경제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유럽 중에서도 영국이나 벨기에 등 몇몇 나라는 아직도 입헌군주제가 살아 있고 귀족 작위 체계가 유지 중이다. 어떤 면에서는 문화적으로 유럽의 자긍심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비단 근대 유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근대화가 되면서 부를 이룬 사람들이 고등고시 출신자들인 판·검사나 의대 출신 사위를 보려고 열쇠 3개는 기본으로 준비하여 혼사를 이루는 일도 사회적 신분 상승을 꿈꾸는 일이었다. 조선 말기에도 천민들이 양반 첩을 사서 신분세탁을 했던 일도 마찬가지 맥락이다. 예나 지금이나 상류층에 대해 동경은 그리 달라진 것이 없고 현재진행형이다.

자본주의 시대가 되면서 경제력이 곧 신분과 지위를 대변하고 경제력이 결국은 능력의 척도이니 말이다. 사주학에서 태생이 귀격(貴格)인 사람이 있다. 반안격(攀鞍格)의 사람들이다. 반안이란 말을 타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다. 전통시대에 말을 탄다는 것은 높은 관직에 오르는 것이니 출세를 의미했고 사회적 신분이 높고 성공한 것임을 대변한다. 반안살이 정관이든 편관이든 관살(官殺)과 함께 있으면 그 출세운은 더욱 강해지는 것으로 해석한다. 본인 일주를 기준으로 분석하는데, 역시 일주에 드는 반안살을 제일 길하게 친다. 반안살이 년주에 오면 조상덕이 뛰어났고 월주에 오면 부모덕으로 성공할 힘이 강하다. 일주에 오게 되면 본인의 능력으로 대성하게 되고 시주에 오면 자녀의 성공이 확연하다. 다만 기운이 잘못 펼쳐지면 독이 되기도 하니 성공에 대한 집착과 야망으로 흠이 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7	3		9	1	
			2	9	
		8	7		3
8			7	5	
	6	9			3
9	8		6	1	
	1	4			
	2	3		7	8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니오의 알파벳을 즐기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1	8	2	9	6	8	2	9	7
6	8	9	8	2	7	1	9	2
9	2	7	1	9	2	8	6	8
8	2	7	8	6	9	1	9	
7	1	8	8	9	2	2	6	
9	6	9	2	1	2	7	8	8
2	9	8	9	2	8	6	7	1
1	9	2	2	8	1	9	8	9
8	9	1	6	7	9	8	2	2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904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008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서울사랑상품권’ 1500억 추가 발행... 최대 15% 혜택

서울시, 내달 4일부터 순차 공급
중동사태에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
월 구매한도·보유한도 상향 조정
민간플랫폼·금융기관과 추가 지원도

서울시는 최근 중동사태 등으로 위축된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 1500억원 규모의 서울사랑상품권을 추가 발행하고, 할인·페이백·쿠폰 혜택을 결합해 시민의 소비 부담을 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발행은 5월 4일(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광역 서울사랑상품권’ 1000억원을 시작으로, 5월 11일에는 ‘서울배달+ 뽕겨요’와 ‘e서울사랑샵’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광역 서울사랑상품권’ 500억원을 순차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추가 발행은 온라인 사용처 확대, 할인과 페이백 결합 혜택 강화, 구매 한도 상향 등을 통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지원을 보다 실질적으로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온라인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은

〈상품권별 주요 정책〉

구분	오프라인 (광역 서울사랑상품권)	온라인 (온라인 광역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일시	5월 4일(월) 12시	5월 11일(월) 10시
발행액	1000억원	500억원
할인율	5% 선할인 + 2% 페이백	10% 선할인 + 5% 페이백
사용처	서울시 관내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	서울배달플러스 뽕겨요 e서울사랑샵
구매한도	월보유한도 50만원 총보유한도 150만원	월보유한도 30만원 총보유한도 100만원
유효기간	구매일로부터 5년	구매일로부터 1년
신용카드 구매 시	환불 및 선물하기 불가	
네이버페이 이벤트	5월 중 상품권 구매시 적용 (자치구 서울사랑상품권 포함)	
발행일 2부제 판매	생년 끝자리 적용 구분 출수: 12시~14시, 짝수 15~17시	미적용

/서울시

기존 자치구별 배달전용상품권과 달리 서울 전역에서 사용 가능해, 서울시 공공배달서비스 ‘서울배달+뽕겨요’와 우체국쇼핑 내 서울 소상공인 전용관 ‘e서울사랑샵’에서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하기 위해 기존 할인에 더해 페이백을 추

가하는 방식으로 혜택을 확대한다. 서울시내 48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은 5% 선할인에 더해 결제 시 2% 페이백을 제공한다. 온라인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은 10% 선할인에 5% 페이백을 적용함으로써, 소비자가 체감하는 할인 효과를 크게 높였다.

이번 페이백은 5월 4일 이후 결제 건

부터 적용되며(온라인 상품권은 5월 11일 이후), 결제 다음 달 20일에 페이백 상품권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다. 선할인과 페이백을 합산하면 최소 7%에서 최대 15%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든 페이백 혜택은 선착순으로 제공되며, 예산 소진 시 이벤트가 종료될 수 있는 만큼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아울러 2022년 이후 발행되어 현재 보유 중인 오프라인 광역 서울사랑상품권도 동일한 조건으로 페이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민 구매 편의도 확대된다.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는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총보유 한도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보다 여유롭게 구매·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서울시는 민간 플랫폼·금융기관과 협력해 할인·적립·쿠폰 혜택을 결합한 추가 지원을 마련, 시민들이 체감하는 소비 혜택을 한층 더 높인다.

5월 1일부터 네이버페이로 서울사랑상품권을 10만원 이상 구매할 경우 1000원을 엔페이(Npay) 포인트로 적립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해당 포인트는 6월 말 지급될 예정이며, 네이버페이 자체 재원으로 운영된다.

신한은행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서울배달+뽕겨요’에서 지역화폐 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2만 원 이상 결제 시 5천 원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추진한다.

한편, 상품권별 유효기간이 달라 주의가 필요하다.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은 발행일로부터 5년, 온라인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은 1년 이내 사용해야 한다. 또한 신용카드로 구매한 상품권은 잔액 환불 및 선물하기가 제한된다.

서울시는 서울사랑상품권 구매를 원하는 시민은 원활한 이용을 위해 사전에 ‘서울페이플러스(서울Pay+)’ 앱을 내려 받아 회원가입을 완료하고, 결제수단(계좌·카드)을 미리 등록해 둘 것을 권장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올해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대학교육협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전년비 14.7만원 ↑... 130개교 인상

올해 4년제 대학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원으로 전년 대비 14만 7000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대학정보공시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며, 올해는 총 403개 대학이 공시 대상이다. 4월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사

회보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에 대해 공시한다.

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 192개교,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정보공시내용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4년제의 경우 2026학년도 등록금은 192개교 중 130개교(67.7%)가 인상했으며, 62개교(32.3%)는 동결했다.

학생 1인이 연간 부담하는 평균 등록금은 727만원으로 전년 712만원 대비 14만 7000원(2.1%) 상승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사립은 823만원, 국공립은 425만원이었으며, 수도권은 827만원, 비수도권은 662만원이다.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3만원, 예체능 834만원, 공학 768만원, 자연과학 732만원, 인문사회 643만원 순이다.

전문대의 경우 125개교 중 102개교(81.6%)가 인상했으며, 23개교(18.4%)는 동결했다. 학생 1인이 연간 부담하는 평균 등록금은 665만원으로 전년(648만원) 대비 17만원(2.7%) 올랐다.

사립은 669만원, 공립은 223만원이었으며,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708만원, 비수도권은 629만원이다.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3만원, 공학 679만원, 자연과학 672만원, 인문사회 592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이현진 기자

고양시, ‘경기도기술학교 북부캠퍼스’ 유치

오는 6~7월 중 정식 개소 목표
전기·냉난방·AI 교육 과정 운영

고양시가 경기 북부 지역의 직업교육 인프라 확대를 위한 핵심 거점 확보에 성공했다. 시는 ‘경기도기술학교 북부캠퍼스’ 유치가 최종 선정되며 지역맞춤형 인력 양성 기반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운영하는 공공 직업훈련기관인 경기도기술학교는 그동안 화성시에 위치해 북부 지역 주민들이 교육 접근성 측면에서 불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재단은 북부캠퍼스 설립을 추진하며 경기 북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했고, 고양시가 최종 대상지로 낙점됐다.

북부캠퍼스는 덕양구 창조혁신캠퍼스 성사 9층에 약 250평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다. 시는 5월 중 교육시설 조성 공사에 착수해 오는 6~7월 정식 개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개소 이후에는 전기설비 시공관리,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 AI 기반 소프트웨어 자동화 등 실무 중심의 직업교육 과정이 운영된다. 시는 지역 산업 수요에 맞춰 교육 프로그램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캠퍼스 유치를 통해 고양시는 산업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동시에 지역 내 고용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유휴공간을 활용한 시설 조성으로 예산 효율성을 확보하고, 올 하반기 약 80명의 교육생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서울숲에 16년 역사 ‘경기도 교류정원’ 조성

내일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개막
서울시와 첫 상생협력 성과 공개

경기도가 16년간 축적한 정원문화를 서울 도심에서 선보인다.

경기도는 오는 5월 1일 개막하는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서 서울시와의 첫 상생 협력 성과인 ‘경기도 교류정원’을 조성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류정원은 양 기관이 지난 1월 체결한 ‘우호 교류정원 조성 협약’에 따라 추진됐다. 경기도와 서울시는 서로의 정원박람회에 상대 도시의 정원을 교차 조성해 행정 경계를 넘어서 정원문화 화



경기도 교류정원. /경기도

산에 뜻을 모았다.

서울숲 일원에 조성된 경기도 교류정원의 대표 작품은 ‘30.5m의 수평선’이다. 이 작품은 경기도 정원박람회의 16년 역사와 서울숲의 공간적 상징성을 결

합해 길이 30.5m의 선형 구조물로 구현됐다. 송재안, 김건우 작가가 참여했으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조성 전반을 맡았다.

교류정원은 박람회 개막일인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약 180일간 운영된다. 서울숲을 찾는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서울시도 오는 10월 양평 세미원·두물머리에서 열리는 ‘제14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에 교류정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태선 경기도 정원산업과장은 “이번 교류정원은 경기도와 서울시가 함께 만든 정원문화 협력의 첫 결실”이라며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수도권을 대표하는 정원문화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해돋이 / 05:38 | 해질 / 19:21

오늘의 날씨

4월

30

일(木)

음력 : 3월 14일

수도권 날씨

9 ~ 22°C

- 운동 지수 ■■■■■■■■■■
- 빨래 지수 ■■■■■■■■■■
- 세차 지수 ■■■■■■■■■■
- 외출 지수 ■■■■■■■■■■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메트로 한줄뉴스



▲연준, 금리 동결 유력...파월 퇴임 후에도 ‘인하 시계’ 늦춰지나
▲트럼프, “봉쇄로 이란 붕괴상태” 주장...美 내부 서도 갑론을박

/사진 뉴스시스

▲트럼프 지지율 34%로 최저 수준...이란전·물가 부담에 민심 이탈
▲이란 내부 충돌 격화...핵 협상 놓고 강경파·온건파 파워게임

▲日 히키코모리, 청년만의 문제 아니었다...평균 37세·가족도 고통화
▲대만 증시, 캐나다 제치고 세계 6위...AI·반도체 랠리 영향



유통업계
방한객 맞이 분주
내수공백 메운다
니



Life

아모레퍼시픽
1분기 호실적
시장 다변화 주효
L2



헤어 '연출' 패러다임 선도... 디지털·글로벌 재도약

메가히트 브랜드 탄생스토리

아모레퍼시픽 '미장센'

헤어는 관리가 아니라 '연출'의 영역이다. 아모레퍼시픽이 헤어 브랜드 미장센의 브랜드 정체성을 강화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섰다.

미장센은 2000년 헤어 브랜드로 출발했다. 헤어 관리와 스타일링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0월에는 브랜드 재단장을 거쳤다. 디지털 환경과 해외 시장에 발맞춰 브랜드 전략에 변화를 준 것이다.

우선 가장 큰 변화는 워드 마크다. 미장센이라는 브랜드명은 프랑스어 'mise-en-scene'에서 왔다. 영화에서 장면을 연출한다는 뜻이다. 아모레퍼시픽은 '헤어는 곧 자기 연출'이라는 의미를 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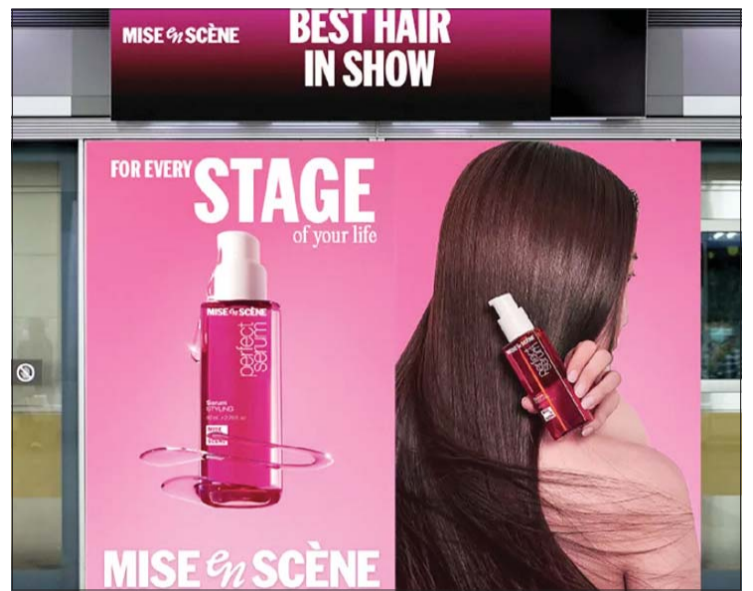
지난해 워드마크 등 브랜드 리빌딩 '온 스테이지 스타일' 메시지 구체화 글로벌 캠페인 등 소비자 접점 확대

특히 이번 재단장으로 'mise-en-scene'을 보다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구조를 설계했다. 'MISE', 'en', 'SCENE' 세 단어를 각기 다른 서체와 굵기로 구성하고, 가운데 en에는 머리카락의 흐름을 연상시키는 곡선을 활용했다. 시선이 자연스럽게 SCENE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해 브랜드명이 하나의 장면(scene)처럼 인식되도록 한다.

기존 블랙스퀘어 로고에서도 핵심 키워드 SCENE을 중심에 배치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하면서, 워드 마크



지난해 10월 뉴욕 시내에 미장센 옥외광고가 설치되어 있다.



브랜드 캠페인 '무대 위 스타일(온 스테이지 스타일)'

를 넣은 새로운 심볼을 내놴다.

브랜드 철학도 확장했다. 기존 철학의 폭을 넓혀 '무대 위 스타일(온 스테이지 스타일)'이라는 메시지를 구체화했다. 과거 특별한 날의 스타일링에서 나아가 이제는 일상 모든 순간을 무대로 자신을 연출하는 경험에 중점을 둔다.

이러한 변화는 대표 제품 '퍼펙트세럼'에 처음 적용됐다. 제품군 전반에서 디자인 원칙과 정보 제공 구조를 동일하게 통일했다. 글로벌 시장 진출을 고려해 모든 패키지를 하나의 레이아웃으로 통합, 국가별 규제에도 유연하게 대응 가능하다.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새로운 브랜드 슬로건 '나의 장면을 빛내라'라는 주제의 글로벌 캠페인도 펼쳤다. 글로벌 숏폼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서 댄스 챌린지를 운영했다. '퍼펙트세럼'을 소재로 하며 중독성 있는 배경음악과 포인트 안무를 결합해 유키 나는 머릿결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글로벌 소비자들과 소통했다. 미장센 브랜드 모델인 K팝 걸그룹 에스파를 시작으로 다양한 인플루언서들이 참여했다.

성과도 뒤따랐다. 퍼펙트세럼은 지난해 말 미국 최대 이커머스 아마존이 진행한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에서 헤어 스타일링 오일 부문

1위를 차지했다. 또 해당 행사 내 미장센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5% 늘었다.

퍼펙트세럼은 부스스하고 손상된 머릿결을 즉각적으로 개선하는 데 쓰인다. 해외에서 잘리고 윤기 나는 '글라스 헤어'를 위한 K헤어 제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3년 연속 헤어 에센스 오프라인 매출액 1위, 누적 판매량 1억 병을 돌파했다.

퍼펙트세럼 인기는 올해 2월 서울 성수에 위치한 '트렌드팻 바이 올리브영N 성수'에서 열린 브랜드 단독 팝업에서도 확인됐다. 현장은 곳곳은 마치 무대 위 주인공이 된 듯한 분위기로 꾸며졌고 제품 직접 체험 공간도 운영됐다. 유키, 부스스함, 건조함 등 헤어 고민에 따라 퍼펙트세럼을 선택하도록 했다. 팝업 기간 동안 당시 국내외 연휴 일정이 겹치면서 중국, 일본 고객들을 중심으로 하루 평균 약 1200명이 방문했다.

'퍼펙트 매직 스트레이트' 제품군 또한 브랜드 핵심 제품이다. 2024년 8월 처음 공개되고 출시 6개월 만에 판매량 10만개를 달성한 바 있다.

샴푸, 트리트먼트, 세럼 총 3종으로 구성됐고 손상된 모발부터 곱슬모까지 관리할 수 있는 3단계 기능이 특징이다.

샴푸는 모발의 습도를 관리해 부스스함을 정돈해 준다. 트리트먼트는 샴푸 이후 더욱 확실한 스트레이트닝 효과를 제공한다. 트리트먼트의 경우 미장센이 개발한 하이드로 매직 코트 기술을 집약했다. 쫘뽀한 크림 제형이 밀착되면서 모발을 매끈하게 한다.

세럼은 퍼진 머리를 오랫동안 지속해 준다. 가벼운 제형으로, 넉넉하게 발라도 부담이 없으며 잔머리 세팅과 웨트 헤어 연출도 가능하다. 모든 제품에 적용된 오로라 플랫폼 성분은 모발에 유키를 더해준다.

이달에는 고급 제품군으로 분류되는 신제

품을 추가했다. 기존 프리미엄 라인 '살롱10'에서 '웹타이드 리페어' 6종을 개발했다.

살롱10 웹타이드 리페어의 의모발 속을 채우고 결합하는 특허 본딩 기술이 시술과 열로 손상된 모발을 집에서도 관리해 준다. 고급 살롱에서 관리를 마무리한 듯한 수준을 갖췄다.

살롱10 웹타이드 리페어 글레이징 헤어밀크는 마치 글레이즈 도넛 같은 탱글한 광택감을 선사한다. 살롱10 웹타이드 리페어 샴푸와 트리트먼트는 본딩 웹타이드 성분을 3만 ppm 처방했다. 머릿결에 단백질 영양을 전달해 머릿결을 가꿔준다.

'헤어엔뷰티' 제품군 확대 구축 퍼펙트세럼 등 글로벌 인기몰이 "K-헤어 성장 가능성 높여갈 것"

헤어 마스크는 본딩 웹타이드 집중 복구 포뮬러를 함유해 손상된 모발 부위를 채운다. 노위시 애플 트리트먼트는 드라이 전 웹타이드를 먼저 채워주어 손상을 보호하고, 마무리로 쓰이는 노컷 오일세럼은 갈라진 큐티클 케어로 모발 끊어짐을 완화시킨다.

아울러 미장센은 아모레퍼시픽의 '헤어엔뷰티' 사업 핵심 브랜드다. 꾸준히 제품군을 확대 구축하고 있고 아마존, 틱톡 등 해외 유통망 신규 입점으로 글로벌 소비자 접점을 다각화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K뷰티를 넘어 K헤어의 성장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metro



미장센 퍼펙트세럼 제품군(좌)·퍼펙트 매직 스트레이트' 3종(우)



/아모레퍼시픽

▲ K리그1 제주, 신현호·조재민 디렉터 선임...코스타 감독 보좌
▲ 휴식 마친 손흥민 돌아온다...LAFC, 북중미컵 준결승서 톨루카 상대

▲ 또 침묵 김혜성, 3경기 연속 무안타...시즌 타율 0.294
▲ '안세영 완승' 여자 배드민턴, 압도적 3연승으로 세계단체선수권 8강행



▲ 탁구 대표팀, 세계선수권 위해 런던 출국...남녀 단체전 메달 도전 /사진 뉴스
▲ 국가유산진흥원, 가정의 달 맞아 국가무형유산 37개 종목 공개

SAMSUNG

Galaxy S26 Ultra Galaxy AI ✨



samsung.com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이미지입니다. 특정 AI 기능 사용을 위해서는 삼성 계정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S펜은 갤럭시 S26 울트라에만 내장되어 있습니다. AI는 인공지능을 의미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삼성닷컴을 참고하세요.

New 갤럭시 AI 구독클럽

New 갤럭시 AI 구독클럽의
최대 혜택을 만나보세요